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2024년 새해를 허락하시고, 새로운 소망을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진정한 구원자 되시며 정능자 되시는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한 해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충만하신 사랑 가운데 늘 거하게 하소서, 생명 되시고, 능력 되시는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에든버러 2010을 넘어서 로잔에서 서울까지, 2024 서울 제4차 로잔대회를 준비하며, 1920 에든버러 세계선교대회 이후 선교의 현주소



역사적인 1910 에든버러 세계선교대회 이후 100년 동안 모든 대륙에서 거의 100개의 대회와 연구 프로젝트가 진행되었다. 그 후 10년이 지난 2010년에, 우리는 그간에 우리가 배운 내용과 오늘날 그 내용이 선교에 미칠 수 있는 영향에 대해 질문하고 있다. 우선, 세 차례의 주요한 100주년 행사들을 돌아보고, 둘째로는 에든버러 2010 대회에서 비롯된 주목할 만한 도서 시리즈를 살펴볼 것이다. 그리고 셋째로는, 이러한 자원이 2020년대의 상처 받은 세계에서 선교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도움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해 제안하려고 한다.

서로 다르게 기념하다 : '가나의 세 자녀'

1978년에 캘리포니아 패서디나의 풀러 신학교에서 교수로 역임했고 그 당시 미국세계선교센터 책임자 랄프 윈터(Ralph Winter)는 그가 20년 전에 '결혼'이라고 일컬어온 일을 돌아보았다. 그는 1910 에든버러 세계선교대회의 계속위원회로 출발한 국제선교협의회(International Missionary Council, IMC) 같은 뿌리에서 나온 세계교회협의회(World Council of Churches, WCC)에 합병된 결정이 가나의 아크라에서 이루어졌다고 언급했다. 그것은 IMC와 WCC의 통합이 서구 기관들과 이전에 식민지화된 국가

들, 즉 제3세계 교회들 간의 선교를 위한 구조적 연합을 이루도록 의도된 결정이었다. 그러나 윈터는 사실상, 이 '합병(marriage)'이 상이한 세 '자녀들'을 낳았다고 주장했다. 첫 번째 자녀는 WCC 세계 선교와 전도위원회(Commission for World Mission and Evangelism, CWME)였다. 두 번째 자녀는 스위스 로잔에서 역사적인 첫 번째 대회를 열었던 로잔운동이었다. 세 번째 '가나의 자녀'는 윈터와 다른 미국 선교학자들이 '타문화 선교 사역'에 헌신한 선교사들의 결집을 위해 초안을 잡은 '부르심'에서 구상되었다. 2010년도를 돌아보면 서나는 윈터의 예측이 대체로 성취되었다는 생각이 든다.

에든버러 세계선교대회 100주년을 맞아 윈터가 말한 '가나의 세 자녀들'은 각각 대규모 행사를 열었다. 에든버러 2010은 WCC의 후원을 받았으므로 에든버러 1910의 제도적 계승자였다. 이 대회는 특히 존 모트(John Mott)가 에든버러 1910의 폐회 연설에서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모든 사람들 - 현재 '세계 기독교'와 유사한 - 과 함께 이를 교회의 전 세계적인 성장을 언급하면서 '확산되는 그리스도(a larger Christ)'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한 비전을 포착했다.

<3면으로 계속>



CT, 중국 교회와 기독교인들 ZOOM 사용에 어려움 겪어

작년 8월 어느 더운 밤, 중국 북부의 대도시에서 가정 교회를 이끄는 소그룹 리더인 용샤오는 매주 진행하는 Zoom 성경 공부를 시작하려던 찰나에 소그룹 멤버들로부터 Zoom이 작동하지 않는다는 예상치 못한 메시지를 한꺼번에 받기 시작했다. IT 전문가인 용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집중했다. 그는 Zoom 앱을 업데이트하고 Wi-Fi 대신 휴대전화 데이터를 사용하도록 제안했다. 과거에는 Zoom이 다운되었을 때 이러한 방법이 효과가 있었지만, 이번에는 아무 소용이 없었다. 백업으로 용의 교회는 정부의 감시와 앱 검열로 인해 일반적으로 피하는 위챗의 오디오 전용 그룹 통화로 전환하기로 했다. (CT는 보안상의 문제로 이 기사에서 중국 내 모든 인물의 이름을 변경했다.) 다행히도 이 그룹은 그리스도나 영성과 같은 민감한 종교적 단어를 언급하는 동안에도 중단이나

갑작스러운 종료에 직면하지 않았다. 하지만 앱에서 참가자 수를 15명으로 제한했기 때문에 일부 참가자는 참여하지 못했고, 그룹의 예배 인도자는 부르려던 노래의 오디오를 공유할 수 없었다. 그날 밤 이후 용과 소규모 그룹은 Zoom에서 계속 문제를 겪었고, 결국 위챗을 계속 사용할 수밖에 없었다. CT가 9명의 중국 교회 지도자 및 사역자들과 진행한 인터뷰에 따르면, 지난 3개월 동안 Zoom을 사용하면서 비슷한 문제에 직면했다고 한다. Zoom은 중국에서 축출되었다는 공식 발표를 하지 않았지만(Zoom의 서비스 현황 웹사이트에는 중국에서 운영 중이라고 명시되어 있음), Reddit과 Zoom 웹사이트의 사용자들 모두 서비스 중단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Zoom은 CT의 논평 요청에 응답하지 않았다.

<9면으로 계속>



3면

시론 최해근 목사



4면

신년 특별설교 김영수 목사



7면

교회도들의안락학 이길호 목사

월드미션대학교
신학/상담학/음악학/예배학/간호학/사회복지학
캠퍼스온라인
www.wmu.edu | 500 Shatto Pl., Los Angeles | (213)388-1000

윤새롬 치과
Nouvelle Dental
Lily Yoon DMD / 원장 윤새롬
T. 917-908-0075
154-08 Northern Blvd 2H, Flushing, NY 11354
YOON.DENTAL154@gmail.com | WWW.LILYMD.COM

Sharing Bread for Soul (SBS)
생명의 빵 나누기 운동
말씀과 빵을 나누며 영혼을 살립니다
문의 강태광 목사 (323)578-7933

LA 호텔식 하숙
GUEST HOUSE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 (김스전기양)
TEL. 213-663-9181
965 Fedora St. L.A., CA 90006
Email: laguesthouse@live.com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 총회 동부개혁장로회신학교 2024학년도 봄학기 입학안내

하나님의 주권 아래 탁월함을 추구하는 신학교

복음의 일꾼으로 부르시는 하나님, 여기 그 귀한 소명자를 훈련시키는 신학교가 있습니다. 개혁주의 신학과 이민목회 현장을 겸비한 교수진, 세계의 복음 현장을 누비는 자랑스러운 동문, 예수님을 닮아가는 아름다운 재학생, 그리고 따뜻한 교직원들이 함께 기다립니다.

본 신학교는 미주에서 가장 큰 한인 장로교 교단이며, 북미주 보수 장로교 및 개혁교회협의회(North American Presbyterian and Reformed Council)의 정회원, 아시아 신학연맹(Asia Theological Association)의 준회원입니다.

모집학과	대학원	학사
목회학석사(M.Div)	3년	대졸 및 동등학력자
기독교교육학석사(M.R.E)	2년	
선교학석사(M.Miss)	2년	

제출서류

1. 입학원서(본교 소정양식)	4. 신앙고백서 1부
2. 당회장 또는 목사 추천서 1부	5. 명함판 사진 2매
3. 최종학교 졸업 및 성적증명서 1부	6. 입학전형료(\$30)

신학교 부설 평신도 음악원

1)기타	2)키보드	3)하모니카
------	-------	--------

입학 상담 문의 : 646-708-1011

THE REFORMED PRESBYTERIAN THEOLOGICAL SEMINARY OF THE EAST 동부개혁장로회신학교 학장 김성국 박사

원서 교부 및 접수

- ◆ 원서접수마감: 2024년 1월 26일(금) 오후 6시
- ◆ 원서 교부처: 신학교 사무실(퀸즈장로교회 내 2층)
- ◆ 입학 시험: 2024년 1월 27일(토) 오전 11시, 면접 오후 2시
- ◆ 개강부흥회: 2024년 1월 29일(월) - 1월 31일(수) 저녁 7시 45분
- ◆ 문의처: 학감 정기태 목사: 917-733-7387
행정실장 김신경 전도사: 646-708-1101
사무실: 718-463-7163 / www.rptseast.org
143-17 Franklin Ave. Flushing, NY 11355

특전

- 1) 국내외 저명한 교수진 확보
- 2) 성적우수학생에게는 장학금 지급(특히 목회자, 선교사적 사명감이 투철한 자에게는 선별심사 후 Scholarship을 지급함)
- 3) 6만여권의 한글, 영문, 신학장서를 소장한 '토기장이 북카페(도서관)'가 있음
- 4) 목회학석사졸업자는 총회 목사고시를 거쳐 목사안수를 받을 수 있음
- 5) 졸업생은 원할 경우에 2년 인턴 과정 후, 심사를 거쳐 개척교회 지원함
- 6) 대학원 과정을 졸업한 여전도사는 본 교단 산하와 그의 기관에서 전도사로 사역할 수 있음

발행인 칼럼

허락이요!



김성국 목사 (퀸즈장로교회 담임)

회의(會議)가 길어지면 회의(懷疑)가 깃든다는 말은 거의 명언(名言)에 가깝다. 모든 목회자와 지도자들이 경험하듯이 필자도 수많은 회의에 참석하였고 그에 못지않게 회의를 인도하기도 하였다. 회의가 주특기인 것처럼 지구력이 강해 보이는 분들을 가끔 뵈지만, 대부분의 회의 참석자들은 회의가 길어질수록 입은 좀 나오고 이마는 지푸러진다. 그런 회의 가운데 고마운 것은 어떤 의미있는 안건에 동의와 재청이 이어지면서 잘 통과될 때이다. 다음 방식이 언제나 옳다는 것은 아니지만 필자가 한국에서나 미국에서 담임으로 섬길 때 당회, 제직회, 공동의회에서 다수결로 안건을 처리해 본적이 없다. 당회에서 의견이 나뉠 것 같으면 그 안건을 아예 기각하거나, 당회원들이 각각 더 기도와 생각의 시간을 갖고 다시 모이는데 그때도 계속 만장일치가 아니면 완전히 포기한다. 그런 과정을 거쳐 제직회나 공동의회에 상정된 안건들은 큰 어려움 없이 동의와 재청을 받아 가부를 물어 시행하게 된다. 노회와 총회에서는 또 다른 안건 통과 방법이 있다. 동의와 재청의 방법보다 아주 단순하나 사투 무제가 있는 방식인데 안건에 따라 회의의 석상에서 누군가 "허락이요!" 하면 끝나는 방식이다. 다소 아쉬운 "허락"도 있지만 재론이 필요없는 얼마나 깔끔한 방식인가. 회의(會議)를 회의(懷疑)에서 건져주는 좋은 외침, "허락이요!"

아내와 필자는 CC커플이다. 교회에서 만나 교제하고 결혼한 case이다. 필자는 훗날 아내가 된 일년 후배를 중등부 때 눈여겨 보았다. "봉사 정신이 강하군." 정도의 생각만 했을 뿐이지 중학생 때부터 복잡한 스토리를 만들지는 않았다. 때가 되어 그 동일한 자매에게 프로포즈를 했고, 한 번의 고백을 마친 후 두번째에 승락을 받았다. 결혼으로 가는 길에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된 것은 아니다. 어머니가 허락해 주시지 않았다. 사귀는 자매는 너무 좋아하고 사랑하였으나 나의 상황이 어려웠기 때문이다. 재정이 넉넉지 않은 신학생이 공부와 함께 아내 그리고 장차 태어날 아기까지 먹여야 하는 결혼생활을 어떻게 원활히 할 수 있겠냐며 조금 미루라고 하셨다. 어느 날, 밤새 쓴 어머니께 드리는 편지를 아침식사를 마친 밥상 위에 올려놓고 학교로 갔다. "어머니 전상서----"로 시작되는 편지는 어려운 상황에 어떻게 결혼생활을 할 것인지에 대한 결연한 의지와 방법론이 이어졌다. 필자는 확신했다. 어머니가 눈물없이 읽으실 수 없을 것이라고. 그날 저녁에 나의 확신이 입증되었다.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날 저녁에 어머니의 이런 말씀이 가능했겠는가. "결혼, 허락한다!"

역경의 상황에서 아베스는 문제만 바라보지 않았다. "내 인생은 여기서 끝이야." 하면서 포기과 절망의 구슬픈 노래를 부르지 않았다. 그의 인생 앞에 펼쳐진 문제 앞에 그가 선택한 것은 비판적인 것이 아니었다. 그는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능하신 하나님께 기도하기로 선택했다. "아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듬하여 이르되 아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아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께서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하나님은 문제와 현실을 초월한 아베스의 담대하고 당당한 기도에 "허락하노라"로 멋지게 응답하셨다. 노회나 총회에서도 아무리 힘들어도 "허락이요!"가 취소되지 않는다. 하물며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 취소될 리가 있겠는가.

누구나 그러시지만 필자와 섬기는 교회도 신년벽두부터 여러 기도를 하님께 드렸다. 또 많은 기도를 드릴 것이다. 올해의 걸음을 가로막으려는 세력이 만만치 않겠으나 이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길 우리와 같은 음성들 말씀 읽다가 들었다. "허락하노라!"

창세기 1장은 성삼위 하나님을 계시하는가?

창세기 1장은 성경 드라마가 펼쳐지는 무대, 즉 삼위일체 하나님의 세상을 보여준다

창세기 1장에 삼위일체가 등장할까? 대답은 확고부동한 "그렇다"이다. 하나님은 어제, 오늘, 그리고 영원토록 성부, 성자, 성령이시기에 창세기 1장을 포함하여 성경의 모든 페이지에 걸쳐서 삼위일체 되신 자신을 드러내신다.

성경의 모든 페이지에서 삼위일체의 존재를 입증하는 건 쉽지만, 다양한 구절 속에서 드러나는 삼위일체의 입체 방식을 분별하는 건 훨씬 복잡한 문제이다. 오래전의 그리스도인이라면 창세기 1장에서 특정 구절이 드러내는 것보다 더 과도하게 삼위일체를 찾아내는 과잉 해석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 그에 반해서 현대 독자들은 특정 구절이 증명하는 것보다 삼위일체를 훨씬 적게 바라보는 과소 해석의 위험에 빠질 가능성이 더 높다.

구약 속 숨겨진 존재

구약성경에 삼위일체가 어떻게 존재하는가라는 큰 질문에서 시작하자. 루터교 신학자 요한 게르하르트(Johann Gerhard)에 따르면, 창세기 1장 속 삼위일체는 "그 시대에 적합한 계시 방식으로" 존재한다. 성경 속 삼위일체의 자기 계시는 이중 경륜에 따라 전개된다. 예수님이 육신으로 나타나시기 전(구약의 삼위일체 자기 계시)과 예수님이 육신으로 나타나신 후(신약의 삼위일체 자기 계시)이다. 이 두 형태의 계시를 가르는 대조는 절대적이지 않다. 그러니까 삼위일체가 구약에는 전혀 없고 오로지 신약에는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대조는 상대적이다. 구약과 신약에는 다 삼위일체가 드러나지만, 임하시는 방식은 서로 다르다. 구약에서 삼위일체는 "숨겨져" 있고, 신약에서는 명확하게 "드러난다."

구약에 숨겨진 삼위일체의 임재는 마치 밭에 감춰진 보물과도 같이(마 13:44; 골 2:2-3) "숨겨진 임재"이다. 그에 반해서 신약에서 삼위일체는 "명백한 임재"를 보여준다.

창세기 1장 속 숨겨진 존재

이러한 명확한 설명을 통해 우리는 이제 질문에 답할 준비가 되었다. 삼위일체는 어떻게 창세기 1장에 "그 시



대에 적합한 계시의 방식으로" 존재할까? 창세기 1장은 삼위일체의 숨겨진 임재에 대한 최소한 세 가지 흔적을 보여준다. 이러한 흔적은 신약성경에 나타난 삼위일체 계시의 완전한 체계를 위한 필수적인 구성 요소를 제공한다.

1. 창세기 1장은 주어-동사 불일치의 여러 사례를 보여준다.

창세기 1:1에서 복수명사 "엘로힘"(ESV에서는 "God")은 단수 동사 "창조하다"와 결합되었다. "태초에 [엘로힘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니라." 그 패턴은 창세기 1:27에서도 반복된다. "이에 [엘로힘]이 자기 형상 곧 [엘로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느니라."

이러한 주어-동사 불일치는 저자가 의도한 것으로 보인다. 그럼 저자가 강조하는 바가 무엇일까? 오로지 하나님만이 그분의 유일한 대리인을 통해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것이다. 창조는 하늘의 존재들이 구성한 위원회의 회의를 통해서 이뤄질 일이 아니었다. 인도자(사 40:13-14)와 돕는 자(사 44:24; 렘 10:12; 27:5) 없이, 오로지 하나님 한 분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

이 점을 강조하면서 창세기 1장은 삼위일체 신학의 첫 번째이자 근본적인 구성 요인인 유일신론을 제공한다. 한 분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물을 다스리시며, 만물을 자신에게

로 인도하신다. 유일신교와 별도로 삼위일체 신앙은 다신교의 한 형태가 될 수도 있다. 오로지 유일신교의 맥락에서만 삼위일체 신앙이 다신교가 아닌 세 위격을 가진 한 분 하나님에 대한 신앙으로 존재할 수 있다.

2. 창세기 1장은 하나님의 유일한 대리인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을 포함한다.

앞의 예들은 하나님만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가르쳐 준다. 또한 하나님의 창조 사역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이 차지하는 위치를 인식하도록 돕는다.

창세기 1장에 따르면,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은 하나님이 만물을 생산하시고, 형성하시고, 또 채우시는 데 필요한 수단이다. 하나님은 창조물이 존재하도록 말씀하신다(창 1:3, 6, 9, 11, 14, 20, 24, 26). 하나님은 다양한 피조물에 이름을 지어 주신다(창 1:5, 8, 10). 그리고 하나님은 자신의 창조물을 축복하신다(창 1:22, 28).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성령은 창조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하나님이 만드신 미완성, 채워지지 않은 세상을 위를 머리 새처럼 맴돈다(창 1:2; 신 32:11 참조). 그리고 생명을 주는 그분의 임재를 통해 창조물에게 생명, 활력, 총명, 그리고 충만함을 공급한다(출 31:3; 35:31; 민 24:2).

(7면으로 계속)

미주크리스천신문 The Korean Christian Press
발행인 겸 편집인: 김성국
L.A. Office: 611 S. Catalina St. #305 Los Angeles, CA 90005
N.Y. Office: 143-17 Franklin Ave. 5th Fl. Flushing, NY, 11355

각종 행사 기념품 주문 제작
성화, 성구약자, 크리스탈강대상, 성가대·목사까운
(323) 737-7699
인터넷 쇼핑몰: www.lachristianbookcenter.com

교회인쇄물·한금봉투·배너
Order Online 30% LOW PRICE
in2printing.com
인투인쇄 T. 718-425-8505

할렐루야백화점
2024년 다이어리 | 신년 교회배너 | 한금봉투 | 기독교의 모든 것
인터넷 쇼핑몰: BestSaver.us | gospellmall@hotmail.com

담임목사청빙공고

여호수아장로교회는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KAPC) 교단 소속이며, 미국 뉴저지 중남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제 1대 담임 목사는 2024년 4월 예정)를 준비하며 제2대 담임 목사를 모시고자 합니다.

자격 요건

- 1. 미주 한인예수교장로회(KAPC) 소속이거나 가입이 가능한 분
2.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KAPC)가 인정하는 신학대학 및 신학대학원(M.Div)을 졸업하고 목사안수를 받은 분
3. 목사 안수 후 Full time 으로 목회 경험이 3년 (담임목사/부목사 포함) 이상인 분
4. 미국에서 합법적인 취업에 결격 사유가 없는 분
5. 이중언어 설교(한국어/영어) 및 소통이 가능한 분 (영어 목회에 비전이 있는 분)
6. 목회에 결격 사유가 없는 분

제출서류

- 1. 이력서(사진 첨부, 한국어, 영어 각 1부)
2. 자기 소개서 및 가족 소개서
3. 목사 안수 증명서 (2)
4. 신학교 졸업증명서 (1)
5. 추천서: 목회자 추천서 2부 (추천자가 직접 email로 제출)
6. 최근 6개월 이내의 설교 동영상(한국어 설교 2회분, 영어설교 1회분) (USB, CD, 또는 동영상 링크)
7. 신앙 고백서
8. 목회 철학 (소명)
9. 목회 계획서 (장단기 목회 계획)

유의사항

- 1. 모든 서류는 여호수아장로교회 공식 이메일만 접수 받습니다.
2. 모든 서류는 오직 청빙에 관련하여 사용하고 반환하지 않습니다.
3. 모든 서류는 PDF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4. 청빙 결과는 개별 통지해 드리며 전화문의는 사절합니다.
5. 제출마감은 2024년 3월 31일이며, 제출처는 jpc1326@gmail.com 입니다.

* 문의 사항들은 이메일(cbycerim65@gmail.com, 청빙위원회 임종호 장로)로 문의하면 됩니다.

여호수아장로교회 담임목사 청빙위원회

구독신청서

미주크리스천신문의 정기구독을 신청하며 1년 구독료를 동봉합니다.

1년 구독료
미국 \$100, 캐나다 \$130, 한국/동남아시아 \$240
유럽 남미 아프리카 \$240
신청유형: 본인구독, 다른사람에게 선물로 보냄
구독자 이름, 후원자 이름, 배달주소, 전화, 받는분 이름, 전화번호, 교회/기관명

E-mail 구독신청: nychpress@gmail.com / lachpress@gmail.com
신청일자: 20년 월 일 신청인 서명:

◆ 미주크리스천신문을 구독(후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LA Office 611 S. Catalina St. #305 L.A. CA 90005
Tel (323)665-0009, (213)674-7982
E-mail lachpress@gmail.com
NY Office 143-17 Franklin Ave. Flushing, NY 11355
Tel (718)886-4400
E-mail nychpress@gmail.com

에든버러 2010을 넘어서

(1면에서 계속)

로잔 운동이 2010년 케이프 타운에서 개최한 제3차 세계 복음화를 위한 로잔 대회는 세계 복음화에 주목한 에든버러 1910의 비전에 기초하여 제1차 로잔대회에서 제시된 '은교회가 온전한 복음을 온 세상에 전하자'는 표어를 해석했다. 이 대회는 위대한 계명(Great Commandment)에 근거하여 지상 대위임령(Great Commission)을 설정함으로써 선교에 대한 이해의 깊이와 넓이를 확장했다.

도쿄 2010은 윈터에 의해 고안되었는데, 에든버러 1910이 전 세계 미전도 종족에게 다가가려는 타문화 선교사들을 결집하려는 대회임을 강조했다. 이 대회는 현대선교 운동이 다양한 멤버십과 다양한 방향성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강조했다.

윈터는 에든버러 세계선교 대회 100주년을 맞아 단일 대회를 희망했지만, 글로벌 선교 네트워크의 다양성을 문제 삼지 않고 그것을 '생산적인 결혼'으로 표현했다. 필자는 한 부모 아래 태어난 이런 여러 행사들이 에든버러 1910을 충실하게 회고하면서도 각기 다른 방식으로 작용했다는 것에 동의한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소식을 나누려는 공동의 열망을 분명히 밝혔기 때문에 세 자녀 모두가 서로에게서 배우고 협력해야 한다는 교훈을 얻는다.

레그넘 에든버러 100주년 시리즈: 선교학자를 위한 자료

에든버러 2010 프로젝트는 2005년에 연구 프로젝트와 컨퍼런스로 시작되었다. 그 프로젝트는 WCC가 시작했지만, 가능한 모든 교회가 모이는 모임은 소집하기 위해 WCC가 직접 주관하지는 않았다. 에든버러 2010 '공동의 부르심(Common Call)'은 가톨릭, 복음주의, 정교회, 오순절, 개신교, 독립 교회의 대표자들이 참여하는 예배 가운데 확인되었다. 그 '부르심'은 프로젝트의 개방적이고 수용적인 분위기를 표현하고 레그넘 에든버러 100주년 시리즈 (Regnum Edinburgh Centenary Series, RECS)에서 나온 광범위한 책들의 기초를 형성했다. 에든버러 1910에서 출판된 9권의 책에서 영감을 받은 레그넘 시리즈의 핵심 설계자는 크누드 요

르겐센(Knud Jørgensen)이었다. 그는 에든버러 2010 연구 프로젝트를 감독했고 동시에 케이프타운 2010의 지도자 중 한 명이었다. 또한, 당시 옥스포드 선교연구센터(Oxford Center for Mission Studies, OCMS)의 학장인 마윈석 박사와 부속 출판사인 레그넘과 협력했다. 나는 에든버러 2010 프로젝트팀의 일원으로서 편집팀에 합류했으며, 토니 그레이(Tony Gray)는 레그넘의 제작 편집자였다.

2009-2016년에 출판된 이 시리즈는 2018년에 35권의 책과 두 권의 개요서(Compendium)로 구성되었다. 각 권은 상충되지 않는 다양한 관점들을 대표하려는 의도로 제작되었다. 종합적으로, 그것은 21세기 초의 선교적 사고에 대한 광범위한 관점(cross-section)을 제공한다. 이 시리즈의 많은 책들은 에든버러 프로젝트에서 나왔다. 예를 들어, 제2권인 '오늘날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는 에든버러 2010 대회에서 모든 대표자들이 소지한 책이다. 이 책은 여러 대륙에서 수년간 일해 온 9개의 연구 그룹들의 보고서와 현재의 선교 주제와 연관된 교회 분열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된다: 선교의 기초; 타종교와 기독교 선교; 선교와 포스트모더니티; 선교와 권력; 선교적 참여의 형태; 신학 교육과 형성; 현대의 기독교 공동체; 선교와 일치-교회론과 선교; 그리고 선교적 영성과 참된 제자도. 100주년 시리즈의 에든버러 2010 대회 책자는 '선교적 영성을 갱신하고, 더 많은 반성을 자극하며, 역사가 이 독특한 시점에서 교회의 공동의 행동을 장려하는 것'을 목적으로 시리즈의 다른 책의 기초를 설정한다.

이 보고서들은 에든버러 2010의 토론과 '공동의 부르심'의 토대를 형성했다. 이후 9개 그룹 모두 시리즈용 책을 제작했으며, 이 주제를 검토하는 다른 그룹들의 작업도 포함된다. 예를 들어, '타종교 선교'에 관한 두 권의 책이 있다. 또한, 이 시리즈는 가톨릭, 정교회, 성공회, 오순절을 포함한 다양한 고백적 선교 신학에 관한 연구와 함께 라틴 아메리카, 한국, 동북부 인도, 중부 유럽과 동유럽 등 세계 여러 지역의 관점에서 본 선교에 관한 책들도 포함한다. 다른 그룹들은 총체적 선교, 글로벌 선교, 디아스

포라 선교, 교육 선교 등 다양한 종류의 선교에 대한 책자; 선교와 성경, 어린이, 일치, 형성, 종교자유; 그리고 화해로서 선교, 주변부 선교, 섬김과 창조 세계 돌봄으로서의 선교에 대해 저술했다.

'가나의 세 자녀들'은 각각 에큐메니컬 선교학(35권), 로잔운동(22권), 복음주의 및 전방개척 선교(9권) 시리즈로 대표된다. 이 시리즈는 모두 오늘날 선교와 세계 기독교에 있어서 우리 자신과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는 매우 소중한 자료다.

상처 입은 세상에서의 선교: 2020년과 그 이후

2021년의 세계는 10년 전보다 어두운 것처럼 보인다. 식민지 시대의 선교 모델에 대한 강한 비판이 있었지만 에든버러 2010의 분위기는 축제와 다름없었다. 서구 기독교 왕국의 사고방식(Christendom mindset)과는 대조적으로, 이 대회는 전 세계에 걸쳐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교회와 여러 센터에서 선교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존재한다는 점에서 세계 기독교에 감사를 표했다. 이러한 비전에 따라 '공동의 부르심'은 '상호성, 파트너십, 협력, 네트워크'로 귀결되는 성령을 통한 전 세계적 상호 연결성을 강하게 표현한다. 세상에 대한 공동의 부르심의 접근은 '진정한 대화, 정중한 참여와 겸손한 증언을 통해 다른 사람에게 민감하게 접근하는 것에 유의하는 한편, 희망적이고 '담대한 확신(bold confidence)'이라는 특징을 띤다.

에든버러 1910은 대영 제국에 의해 세계화된 세계에서 열렸고, 이런 조건으로 인해 전 세계의 선교사들과 교회 지도자들이 대회에 직접 모일 수 있었다. 하지만 불과 4년 후, 제1차 세계 대전으로 인해 세계의 여러 지역들이 분열되었다. 그 후, 세계는 전염병에 의해 황폐화되었고, 대공황을 촉발한 보호주의에 의해 분열되었으며, 소위 냉전으로 인한 이념대립이 확립되기 전에 더 큰 규모의 세계적인 전쟁을 초래한 부상하는 민족주의에 의해 적대감을 갖게 되었다.

냉전 시대에 이은 세계화는 2010년에 동서양의 그리스도인들이 에든버러, 케이프타운, 도쿄에서 모일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했다. 그러나 지난 몇 년 동안, 이 글로벌 연결 시대가 무너지고 있다는 징후들이

나타났다. 대신 민족주의, 보호주의, 이동 제한이 점점 더 증가하고 있다. 이런 경향은 COVID-19 팬데믹으로 인해 더욱 악화되었다. 팬데믹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상처를 드러냈다; 병든 본성과 인간의 고통과 이기심뿐 아니라 부의 뿌리 깊은 불공평, 의료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및 환경의 질도 그렇다. 이런 대부분의 불평등은 인종, 민족 및 위치와 밀접하게 연관된다는 점에서 구조적이다. 현 상황은 이런 공동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세계가 함께 모이기를 요구하지만, 많은 면에서 우리는 점점 더 멀어지고 있는 것 같다. 세계화를 심화시키며, 팬데믹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커뮤니케이션을 가능하게 만든 새로운 미디어와 기술조차도 기술 민족주의와 강력한 지도자의 조작에는 취약하다.

2010년은 하나님의 선교에 다 함께 동참하기 위하여 전 세계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의 선교를 분별하는 소중한 시간이었다. 이런 대회에서 얻은 자원들은 앞으로 나아가 길을 제시한다. 케이프타운 서약(Cape Town Commitment, CTC)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피조물을 통합하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새로운 인류의 종족적 화해(CTC II-B-1)에서 모델이 되는 길을 설명한다. 정부와 초국가적 비정부 기구들이 세계를 하나로 묶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가운데 모든 나라, 민족, 백성과 언어(계 7:9)의 그리스도인들이 협력하는 것이 얼마나 더 중요한지 모른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현재와 내세, 육체와 영혼, 가깝고 먼 곳을 아우른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내적인 요인이나 외적인 요인이 초래한 분열을 극복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다. 화해는 저절로 일어나지 않는다. 그것은 관계를 구축하고, 상처와 불의를 해결하며 함께 나아가는 길을 구성하는 과정이다. 에든버러 2010 '공동의 부르심'은 다음과 같이 결론을 내린다: '영광과 심판 가운데 오시는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우리는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의 임재를 경험하고, 모든 피조물을 변화시키고 화목케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선교에 참여하는 일에 모든 사람이 우리와 함께하도록 초대한다.'

by Kirsteen Kim, TGC

시론

한 해를 시작하며



최해근 목사 (몽고메리교회)

2024년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새해를 맞이하면서 흥미로운 통계자료를 소개합니다. 14세-73세 사이의 한국남녀 1,200명에게 인생에서 가장 후회되는 일이 무엇인지에 대해 질문을 해 보았습니다. 10대부터 70대까지 연령이 고르게 분포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설득력이 있고 흥미롭습니다(자료제공 7옥타브).

10대부터 50대까지 남녀 공통적으로 1위를 차지한 대답은 '공부 좀 할 걸!'이라는 대답이었습니다. 2위를 차지한 대답은 10대와 20대 남여에서는 '엄마 말 좀 들을 걸'이라는 응답이었습니다. 인생 초반에서부터 엄마 말의 가치를 알아보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보고서 중 특이한 사실이 있습니다. 20대, 30대, 40대 남성들이 후회하는 것 중의 하나가 '그 때 그 여자 잡을 걸'이라는 응답이고, 여성 30대, 40대 50대에서 후회하는 공통적인 내용은 '지금 남편이랑 결혼한 것'이라고 응답했습니다. 자신들의 삶이 고달프거나 힘든 이유를 배우자의 탓으로 생각하는 경향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간을 거꾸로 돌려 '그 때 그 여자 혹은 그 남자'와 결혼했다면 지금 모든 것이 행복하고 아름다운 인생으로 바뀌었을까에 대한 대답은 거의 '아니다' 라는 것이 우리의 경험을 통한 결론입니다.

그렇게 배우자 타령을 하다 나이가 들면 다른 대답을 합니다. 60대 남성들이 후회하는 내용 중 3위가 '아내한테 못 할 짓 한 것'이며 70대 남성들이 후회하는 내용 1위가 '아내 눈에 눈물 나오게 한 것'이었습니다. 60대 및 70대 남성들은 대체적으로 아내를 향한 미안한 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배우자에 대한 후회는 여성들에게도 마찬가지로입니다. 70대 여성이 후회하는 내용 중 2위가 '먼저 간 남편한테 잘해줄걸'이라는 것입니다.

젊은 20-40대 시절, 심지어 여성의 경우에는 50대에 이르기까지 배우자 타령을 하며 자기 인생의 책임을 남에게 돌리다가 나이가 들어 60대, 70대가 되면 나 할 것없이 배우자에 대한 불평이나 원망보다는 오히려 그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서운하게 한 일들에 대해 후회합니다. 한 인생 살아오면서 누가 말해 주지 않아도 자기 속에 있는 모난 성품을 스스로 발견하면서 배우자가 아닌 자신이 문제의 근원이 되었음을 깨달았다는 증거입니다.

이 자료를 거꾸로 읽으면 삶의 지혜를 찾아낼 수 있습니다. 굳이 인생의 70까지 이르지 않더라도 20대, 30대, 40대에 내 주변의 그 누군가를 내 불행이나 기여된 내 삶의 이유로 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히려 내 주변의 그 누군가에게 내 자신이 아픔과 고통의 출발점이 되거나 않았는지 조심스럽게 바라보며 한 해를 걸어간다면 이 해를 마칠 즈음에 내 자신과 내 주변 사람들에게 따뜻하고 힘들 때 기댈 수 있는 아름다리 나무로 성장해 가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 풍성한 한 해를 바라보며...

hankschoi@gmail.com

초대합니다

이 시대의 참된 장로상을 이루어 가기 위해 힘쓰며, 우리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 신실한 섬김의 모습을 이루어 가기 위해 힘쓰고 있는 **오렌지카운티 장로 협의회**는 제 10대 회장과 이사장의 이취임 예배를 아래와 같이 드립니다.

이 취임 예배가 기쁨과 감사의 축제가 되기를 기원하며 이 취임 예배에 참석하여 주시기를 정중히 초대합니다.

회장: 배 기호 장로 이사장: 김 영수 장로

- 오렌지카운티 장로협의회 회원일동 -

일시: 2024년 1월 21일 (주일) 오후 4시
장소: 오렌지카운티 한인교회 | 14381 Magnolia St, Westminster, CA 92683
문의: 오렌지카운티 장로 협의회 (714)822-6111



THE ELDERS ASSOCIATION OF ORANGE COUNTY
 905 S. Euclid St. #108, Fullerton, CA 92832 | E mail: eldersassociationoc@gmail.com

목·양·칼·럼



한평우 목사
(유림목회자세미나연구원 원장)

은혜

어느 경제학 교수는 사람이 성공하는 것은 운이라고 했습니다. 머리 좋은 부모님에게서 태어나고 좋은 환경에서 공부한 사람이 명문대를 나와 지도자가 되고 성공합니다. 그는 성공에 이르기 위해서는 운이 80%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공리주의로 볼 때, 머리 좋은 부부는 힘들어도 자녀를 많이

낳는 것은 인류를 위해 기여하는 일이라고 봅니다. 한 사람의 뛰어난 인제는 엄청난 사람들의 일자리를 해결할 수 있고, 국가 발전에 놀라운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운이라고 하지 않고 은혜라고 칭합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는 70조분이 1의 확률로 태어나고,

자라면서 수많은 고비를 넘기며 성장합니다. 며칠 전 기사에 의하면 어떤 분이 핸드폰을 보면서 버스에서 내리다가 발을 헛디뎠다 넘어졌습니다. 그런데 하필 버스가 다니는 대로로 넘어져 오는 버스에 치여 세상을 떠났다는 안타까운 내용이었습니다. 우리의 생명은 코에 있다고 했습니다. 그 들숨과 날숨

은 언제 어디서나 작은 일로 멈추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과신하고 큰 소리를 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는 흔히 주님의 은혜를 습관적으로 말합니다. 때로는 겸양의 표현으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은혜를 얼마나 간절하게 구하고 소망하는 걸까요? 주님께서는 거듭난 인생들에게 동행을 약속하셨습니다. 절대로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겠다고 선언하셨습니다. 그런데 일상생활에서 은혜를 구하거나 그것을 예민하게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출애굽 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평생에 한번 경험할까 말까 한 놀라운 이적을 목격했습니다. 뒤에서는 바르가 무장한 군인들을 대동하고 쫓아오는 데 앞에는 거대한 홍해가 길을 보이지 않게 누워있었습니다. 이제 완전히 죽은 목숨입니다. 사람들은 괴성을 지르며, 모세를 원

망하였습니다. 그때 모세가 손에 든 지팡이를 높이 들자 시퍼런 홍해는 갈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마 백성들은 이런 놀라운 기적 앞에 허벅지를 꼬집어보면서 꿈이 아님을 확인해야 했을 것입니다. 생전 처음, 시퍼런 홍해 바닥을 걸어서 건너갈 때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그 후 백성들은 광야에서 늘 불평과 원망을 입에 달고 살았습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놀라운 이적은 더 이상 없었기 때문이 아니었을까 상상해봅니다. 20억의 복권에 당첨되었을 때, 그 사람은 더 이상의 감격은 맛보기 힘들다고 합니다. 그가 감동할 수 있는 길은 30억이나 50억의 복권에 당첨될 때 감동하게 된다고 합니다. 이적은 항상 더 큰 것을 요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 것을 은혜로 여겨 감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은혜의 규모를 줄

여야 합니다. 서울에서 사람을 만나기 전이나 병원을 다닐 때, 항상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오늘 만나는 분에게 은혜를 입게 해달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했더니 결론적으로 분에 넘치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거주하고 있는 곳은 로마의 대로변입니다. 파킹이 전쟁입니다. 고로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그럴 때 너무 파킹자리를 은혜롭게 만나게 되곤 합니다. 고맙습니다. 주님, 저는 이런 작은 문제에서도 주님의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아름은 늘어 눈이 보이지 않았으나 은혜로 찬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감동으로 열두 아들의 앞날을 예지했고, 축복할 수 있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요? 이런 영성을 우리는 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성도가 사모해야 할 값진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chiesadiroma@daum.net

푸/른/초/장

김영수 목사
(한마음사랑의교회)



새해가 밝았습니다. 주님을 위해 살아갈 날을 연장시켜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는 지난날 뜨겁게 신앙생활을 하다가 천국 간 성도들이 그리울 때가 많습니다. 옛날 교회 부흥회는 한 주간 내내 회개 운동이었고 부흥강사의 설교는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간다. 그러므로 예수 잘 믿고 복음을 위해 살다가 천국 가야 한다는 메시지가었습니다.

계 21장 1-4절에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 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라고 천국에 대하여 말합니다.

막 9장 47-49절에 “만일 네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 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써 조금 치듯 함을 받으리라” 라고 지옥에 대하여 말합니다.

오늘은 복음서에 등장한 몇 사람의 하나님 나라에 관한 질문과 예수님의 대답을 통해 우리 자신의 모습을 점검해 보겠습니다.

1. 니고데모에게 주신 대답(요 3장1-5절)

바리새인 중 유대인의 지도자(산헤드린 공회원)인 니고데모와의 대화 중 예수님의 대답입니다. 요 3장 3절에서 니고데모에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는 유대인의 지도자(아르곤)로 산헤드린 회원이었으며 율법에 충실한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인간의

도덕적 책임”, “육체의 부활”, “영의 존재”, “내세의 상급”, “심판”을 믿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님을 향하여 “하나님께서로부터 오신 선생”이라고 말함으로 거듭나지 못한 자였습니다. 속사람이 변화되어 인격적으로 주님과

15:10절) 말씀과 성령에 이끌려 예수 중심의 삶을 삽니다.

2. 한 부자 청년에게 주신 대답(본문, 막 10장 17-22절, 눅 18장 18-23절)

마 19장 16-24절에 선행을

하지 못하고 씩씩하게 돌아가고 맙니다.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인생의 주인을 물질이 아닌 하나님으로 삼아야 함을 가르치신 것입니다. 벤전 1장 7절 말씀에 보면, 우리의 믿음은 금보다 더 귀하다고 했습니다. 세상에 재물은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습니다. 그 보다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부요한 자가 되는 것이 더 귀하다는 것입니다.

3. 율법 교사에게 주신 대답(눅 10장 25-37절)

눅 10장 25-37절을 보면 “어떤 율법교사가 일어나 예수

기를 통해 가르쳐 주시면서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고 하셨습니다. 약 2장 14절을 보면 야고보는 “구원받지 못하는 믿음”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약 2장 17절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는 것이라”라고 했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참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로 천국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짝퉁 믿음을 가지고는 세상에서도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을 누리지 못하며 천국 시민으로

음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무엇을 포함하고 있는지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빌 2장 12절에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마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라고 하십니다.

새해가 되었습니다. 나는 정말 거듭난 사람인가? 를 점검해 보십시오. 말씀과 성령에 이끌리어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아직도 율법적인 명목상 교인으로 교회를 출입하고 있지는 않은지? 를 점검하여 거듭난 영적인 신앙인들도 영생을 맛보며 주안에 살아가십시오.

또한 정말로 내 인생의 주인을 주님으로 모시고 사는가를 점검하고 새해를 출발하십시오. 사람이나 짐승이나 심지어 기계까지도 주인을 잘 만나야 하는 것처럼 만물의 영장인 우리는 주인이 누구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달라지는 겁니다. 사람은 얼마나 많이 배웠느냐? 얼마나 많이 소유했느냐? 얼마나 높은 지위에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성격이 어떠냐? 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주인이 누구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다. 내가 섬기는 주인이 누구냐에 따라서 내 인생은 송두리째 달라지는 겁니다. 임마누엘 되시는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서 천국의 주인공이 되십시오.

마지막으로 내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 그 사랑을 실천하고 사는가? 를 점검해 보십시오. 우리 주변에는 강도만난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제 사상이나 레위인이 강도 만난 사람을 구원하지 못한 것처럼 우리도 주변에 강도 만난 이웃을 못 본체하고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를 점검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마 9장 13절에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고 하셨습니다. 요 13장 34-35절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고 하셨습니다.

원하옵기는 자신 만만하게 예수님께 질문하고 예수님의 대답을 들은 자들의 모습을 상고해 보며 천국 시민으로서 우리의 모습을 점검하고 새해를 믿음으로 출발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아멘-

youngkim136@gmail.com

예수님의 대답

요한복음 3:3



만남이 없는 자였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아래 영적으로 주님과 인격적인 만남이 있어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습니다. 요 5장:1절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날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그러므로 거듭난 사람은 날마다 자신을 보고 놀랍니다. 갈 2장 20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거듭난 사람은 예수님의 구속 사역을 의심 없이 믿으며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며(고전

영생을 조건으로 알고 있었던 한 부자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이 청년은 자신이 행하는 선행으로 인하여 영생에 대한 확신을 예수님께 받고 싶었던 모양입니다. 자신감을 갖고 영생에 대한 질문에 예수님이 하신 대답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이 청년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그러므로 거듭난 사람은 날마다 자신을 보고 놀랍니다. 갈 2장 20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거듭난 사람은 예수님의 구속 사역을 의심 없이 믿으며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며(고전

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라는 질문에 예수님은 “율법에 무엇이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었느냐?” 라는 질문과 그의 대답을 듣고 “네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런데 놀라운 일은 이 율법 교사는 누가 내 이웃인가를 모르고 살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눅 10장 29절) 라고 반문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율법 교사에게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함은 물론이고 이웃 사랑에 대한 실천이 있어야 함을 선행 사마리아 사람의 이야

행복하게 살지 못하고 근심과 걱정 속에 묻혀 살다가 죽어서도 천국에 입성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신, 구약 전체는 바른 믿음을 가져야 함을 우리에게 강력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히 11장을 읽어 보면 천국 문을 여는 열쇠를 가지고 산 믿음의 선진들의 명단이 공개되어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목숨해 보던 큰 감동과 감격과 도전이 됩니다.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된다’ 믿고 나면 그것으로 끝이고, 이후의 삶은 어떻게 살든지 천국 가는 것과는 상관이 없다는 식 사랑에 대한 실천이 있어야 함을 선행 사마리아 사람의 이야

아는 게 힘이다
가치관 전쟁



새라김 사모
(TVNG 설립자, TVNEXT.org)

미국인의 "신앙적 변화" 와 그 의미들을 알아본다 -1-

할렐루야! Happy New Year! 하나
님이 허락하신 새로운 한해 2024년, 미
주 크리스천신문을 읽으시는 모든 분
위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와 소망 때
문에, 감사가 풍성한 축복 받으시기 바랍
니다!

기독교 크리스천 신앙은 미국에서 대
다수 사람들의 삶에서 여전히 큰 부분
을 차지합니다.

거기에는 특별히 매우 중요한 역사적
인 이유가 있는데, 바로 미국이라는 나
라가 설립되는 과정에서, 미국을 설립한
Founding Father's 들의 성경에 근거한
신앙과 성경에 근거한 US Constitution
헌법까지 만든 엄청난 배경이 있기 때문
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지난
247년간 많은 신앙의 변화가 있었습니
다.

그래서 오늘은 먼저, 새해기도 몇 가지
나누며 시작하고자 합니다.

"우리의 일생이 얼마나 짧은지 헤아릴
수 있게 하셔서 우리가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시편 90:12

1. 2024년, 미국의 곳곳에서 섬기고 있
는 모든 계층의 지도자들과 섬기는 분들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에서 오는 지
혜를 간절히 갈망하고 순종함으로, 그들
의 언행이 일치할 수 있도록 기도하기
원합니다.

2. 미국에서 사는 시민들과 특별히 크
리스천들 삶의 모든 영역에 가장 큰 영
향을 미치는 미국의 정책을 만드는 정
치 지도자들부터 시작하여, 차세대가 영
웅시하며 따라가는 문화와 엔터테인먼트,
사람들의 생각을 깊이 좌우하는 미
디어와 언론사들, 특별히 차세대 교육 분
야 에서 일하는 모든 분야의 지도자 들
등등, 이들에게 로마서 12:2 말씀이 이루
어지도록 기도하기 원합니다.

3.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변화 받
아, 주님의 말씀에서 지혜를 얻어 미국
안에 있는 크고 작은 도시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생명이 넘치는 복음의 잔치들이
미전역으로 다시 번져 나가기를 기도
하기 원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2024년 새해에는, 하
나님을 경외하는 미국을 꿈꾸고 기도하
기에, 먼저 미국의 신앙 지도자들을 보면
서, 미국시민들이 스스로 응답한 '신앙의
주조지' "신앙의 현실" 이 어떤지 간단히
진단해 보고자 합니다.

미국의 신앙의 현실은 어디쯤일까요?

신앙 지도 1:

2023년 10월에 발표된 The Cooperative
Election Study협동조합 선거 연구팀이
약 1년 전에 수집한 가장 최근 조사에는,
6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신앙 설문 조사
에 참여했습니다.

오늘은 아래의 설문조사에 대한 자료
를 먼저 나누며 미국 시민들의 신앙의
현실은 성장인지 퇴보인지 먼저 파악하고,
미국의 신앙적 변화를 분석하기 위
해 2008년과 2022년 자료들 비교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지금 나누는 신앙 지도로만 자
세한 문제파악을 다 나누지 못합니다. 하



지만, 우선은 가장 기본적으로 현실적인
문제 파악에 대한 올바른 질문을 우리
크리스천들이 던질 수 있는 시작이 될
수 있기에 나눕니다.

2008년과 2022년 버전의 협동조합 선
거 연구 자료에 의하면, 자기 스스로를
무신론자, 불가지론자, 또 비기독교인
무신론자라고 답한 사람들의 비율을 볼
수 있는데, 무신론자가 얼마나 빠르게 증
가했는지 명확하게 보여주기 위해 의도적
으로 2008년과 2022년 두 해의 비율을
아래에 나눕니다.

참고로 찐한 파란색일수록 무신론/비
기독교인 이라고 조사에 응한 사람들이
많다는 의미입니다.

우선, 아래의 2008년 지도를 보면 진
한 파란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미국 서부
에 더 많이 집중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워싱턴(40%)과 오리건(43%),
캘리포니아(37%)와 애리조나(35%), 네
바다(34%) 등등으로 무종교인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동부는, 버몬트와
델라웨어주(42%)였습니다.

2008년에 비해 2022년의 설문조사를
볼 때, 자신을 무신론자라고 하는 사람들
이 대단히 높아졌음을 볼 수 있는데,
찐한 파란색같이 2008년에 비해 얼마나
미전역을 크게 휩쓸었는지 볼 수 있습니

다. 서부, 동부까지, 40% 이상, 50%를 넘
긴 주들은 오리건, 워싱턴, 버몬트, 뉴욕,
캘리포니아, 뉴햄프셔, 메인, 매사추세츠,
콜로라도, 알래스카가 포함되어 있으며,
그 외의 주들도 위에서 보시다 시피 찐
한 하늘색으로 변한 것을 보실 수 있습
니다.

무신론자, 비기독교인이라고 응답한
시민들이 가장 많은 주들의 특징:

1. "성경적 세계관"의 매우 큰 결핍:
찐한 파란색 주들일수록 미국에서 성
경적 가치관이 가장 적은 지역으로 상위
10위 또는 20 안에 들었으며, 이러한 지
역에서는 지난 13년간 가장 반기독교적
인 (Anti-Biblical Values on Marriage,
Family, Life, Morality) 결혼관, 가정관,
생명관, 도덕성들이 공립학교와 언론, 문
화를 통해 우리 자녀들에게 가장 빨리
그리고 정책적, 시스템적으로 주입되어
진 것이 높은 주들입니다. 예를 들면, 친
동성애, 친 트랜스젠더주의, 비성경적인
정체성을 아이들에게 주입시키는 세속
주의 교육이 강조되고 "학부모의 권리"
가 아닌 "어린 미성년자들의 성 관계를
할 권리" 에 더 중점을 둔 교육 시스템을
쉽게 찾아 볼 수 있고요.

2. 이러한 주에서 발견되는 보다 진보
적인 세계관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미
국의 전통적인 신앙과 신념을 거부하고
대안적인 비기독교적인 "영성"을 "신앙"
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사실도 목인할
수 없었습니다.

3. 학부모들이 꼭 알아야 할 특징: 이
런 주 들안에 있는 많은 지역들은 다른
지역보다 교육열이 높다는 소문과 실제
로 높은 경향이 있으나, "좋은 학군의 기
준" 이 이전과 달라졌습니다.

일반적으로 학부모들이 생각하는 영
어, 수학, 과학이나 학생들의 성적 고등
학교에서 쌓아놓은 학생들이 일한 경험
의 수준들이 판단 기준이 되기보다는, 비
성경적인 SOGI(Sexual Orientation,
Gender Identity)나, DEI(Diversity,
Equality, Inclusive) 라는 걸은 멋있게
들리지만, 매우 위험한 막시즘 사상을 쫓
고 있는 사상에 의해 판단하고 있음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많지만, 결론적으로, 이런
세상 적으로 유행하는 사상이든 또는 가치
관의 다름 등이, 잠재적으로 성경적 신
앙, 신념을 부인하거나 낮은 신앙 수준
의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볼 수 있었
습니다.

(다음에 계속)

Q&A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신앙상담



이정현 목사

셀비치사랑교회 / (310)749-0577
TLspc0316@gmail.com

Q: 목사님 저는 오랜지 카운티 인근 셀비치 실버타운에 사는 허
장로입니다. 한 교회에서 소속되어 장로로 그리고 제향군인회 회원
으로 조국을 위해 일하고 있습니다. 바쁘게 살다보니 나이가 90이
다 되어 갑니다. 담임 목사님이 죽기 전에 믿음의 작품을 남기는 남
은 생애를 살라고 말하고 있는데 성경의 실례를 들어 말씀해주시
면 감사하겠습니다.

- 셀비치 리저월드의 허 장로

청교도 신앙이 미국의 정신적 지주

A: 좋은 질문입니다. 먼저 실화를 소개합니다. 뉴욕 스포크 주에
사는 한 사람이 출근하려 나가보니 자동차의 배터리가 없어진 것
을 발견했습니다. 어느 못된 놈이 내 것을 가져갔나? 그래서 그날
은 아침부터 영 기분이 안 좋았습니다. 그런데 이튿날 아침에 집
앞에 나가보니 편지와 새 배터리가 놓여있었습니다. "옛그제 위급
한 환자가 생겼는데 제 차의 배터리가 죽어 선생님의 배터리를 빼
갔습니다. 사죄의 뜻으로 새 배터리와 크리스마스 뮤지컬 티켓 2장
을 드립니다. 부인과 함께 내일 밤에 다녀오십시오. 그래서 이 사람
은 기분이 좋았습니다. 헌 배터리 대신에 새 배터리가 생기고 마침
그 뮤지컬은 자기가 평소 보고 싶었던 것인데 티켓 까지 생겼습
니다. 그래서 부인에게 "여보 내 배터리를 훔쳐간 놈이 나쁜 놈
인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맛있는 친구구먼"하고 자랑하면서 다음
날 오후에 부인과 맨해튼에 가서 저녁을 근사하게 먹고 뮤지컬을
보고는 밤 12시쯤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집에 들어와 보니 집안에
누가 다녀갔습니다. TV, 은으로 만든 식탁세트, 은금 패물 등 값나
가는 것들이 몽땅 사라졌습니다. 편지쓰기를 좋아하는 도둑인지 기
동시계와 이런 내용의 쪽지가 붙어 있었습니다. "다른 것도 다 가
져갔지만 가장 귀한 남의 시간은 가져 갈 수 없어 이 큰 시계만은
손을 안 땀습니다.

이 예화는 실제로 있었던 재미있는 실화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예상치 못한 도적을 맞기도 합니다. 제가 아는 목사는 친구
가 하도 쫓아 다니며 비트 코인에 투자하라 해서 했다가 가치가 폭
락해 돈 15만 불을 날렸습니다. 그런데 수십만 달러어치 물건을 도
적맞거나 사기를 당하는 것보다 더 큰 타격은 하나님이 주신 형제
같은 시간과 청춘을 허송세월하거나 도적맞는 것입니다. 현재 연
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하루 24시간으로 말하면 60세는 저녁 7시
요 70세는 저녁 8시 반이요, 80세는 저녁 10시 반에서 11시 사이입
니다. 90세 이상 된 사람은 몇 시입니까? 12시 10분 전입니다. 우
리가 죽기 전에 무언가 하나님과 사람을 위한 믿음의 작품을 남겨
야 하지 않겠습니까? 다윗은 죽기 전에 4000명의 예루살렘 성가대
를 만들었고 솔로몬은 예루살렘 성전을 백향목으로 건축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인류구원의 믿음의 작품을 남겼고
바울은 제 1,2,3차 선교 여행을 통해 이방인 선교의 문을 여는 믿음
의 작품을 남겼습니다. 요즘 손흥민과 황희찬은 한국인으로 축구
를 통해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고 코리아의 국위를 선양하는 작품
을 남기는데 우리도 남의 삶이 길지 않습니다. 죽기 전에 우리도
뭔가 작품을 남겨야 하지 않겠습니까? 나의 재능과 물질과 시간을
통해 크든지 작든지 교회와 복음을 위해 믿음의 작품을 남깁시다.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서부(CA)교회안내

Table listing various churches and their pastors in California, including contact information and service times.

목회와 선교



백운영 목사 (GP 선교회)

“사람 키우는 일에 집중하기를 바라며”

선교사역은 뜨거운 가슴만 가지고 하는 사역이 아니라 차가운 머리도 써야 하는 사역입니다. 오랜 세월 선교사역을 한 후에 현지에서 키워진 제자들을 보면서 마음이 흐트럽습니다. 당시에는 보잘것없던 청년들처럼 보였으나 시간이 지나고 제가 그 지역을 떠난 상황에서 지금 제자들이 하나님의

일하는 소식을 들으면 과연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선교지에서 일할 때 사람 키우는 일은 눈으로 보기에는 표시가 전혀 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프로젝트를 하면서 건물 세우고 프로그램 돌리고 큰 행사를 진행할 때 사람들은 감동합니다. 그러나 겉모습

위주의 사역은 오래가지 못하고 다음 세대에 필요한 일군으로 키워내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건물을 세우건 큰 행사를 하건 모두 많은 재정이 들어가는 일이기 때문에 현지들은 모금부터 행사 과정에서 구경꾼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래서 선교사역은 외적인 모습보다는 더 자세히 안을 들여다 봐야하는 것입니다.

제가 선교사로 모금할 때 예배당 세우거나 건물을 세운다면 많은 분이 관심을 가집니다. 눈에 보이는 일에 참여하고 외형적인 일에 흡족하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저는 건물을 세우거나 큰 행사를 진행한 데는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외지에서 모금되어 세워진 건물은 현지 지도자들에게는 주인의식이 없고 그저 선교사 소유의 건물 정도로만 여겨집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건물은 현지인들에게 의존

만 남겨주고 나중에 관리를 못 하면 폐허가 되기 때문이며 또한 행사는 폭풍 한번 지나가듯 치르고 나면 남은 유익이 별로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현지 학생들을 키워내기 위해 장학금을 요청하면 반응이 시큰둥합니다. 자기가 낸 선교비가 사람을 키우는 일에서 당장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선택 응하지 않고 당장 눈에 보이는 일에 쓰이길 바라는 것이지요. 그래도 저는 묵히 현지에서 제자 키워내는 일에 집중했으며 몇 년이 걸리면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민족 복음화에 앞장서는 꿈이 이뤄지기를 바랐던 것입니다. 결국 시간이 지나니 다들 교단 지도자, 선교 동원가, 신학교 교수 등등 좋은 일군이 되어 인도네시아 교계를 이끌어 가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흡족한 눈물을 흘리곤 합니다. 이제 저희 부부는 다시 선교

지로 향하여 나갑니다. 그리고 예전에 가졌던 동일한 마음으로 말레이시아로 향합니다. 말레이시아에서 아시아 각국에서 몰려온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알게 하고 더 나아가서 그들을 미래의 기독교 지도자로 키워내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말레이시아는 지금 아시아 모든 나라에서 몰려드는 아시아의 중심 나라가 되었습니다. 가히 아시아의 중심국가로 발돋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천마이 넘는 외국에서 몰려온 디아스포라 예제는 기독교로 개종해도 정부에서 크게 신경 쓰지 않는 환경이 주어졌습니다. 21세기 변화 속에서 각국에서 말레이시아로 몰려들고 있으며 예수의 복음을 듣고 예배자로 변화하는 상황을 하나씩 직접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웠습니다. 여기서 교회

란 건물이 결코 아닙니다. 성도들의 예배와 교제와 사역의 모임을 칭합니다. 그리고 살아 있기 때문에 계속 확장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여서 생명력이 확산되고 또 다른 교회를 만들어 냅니다. 그러면서 교회는 자연히 선교적으로 성숙해집니다. 이런 교회 공동체를 세우기 원합니다. 현지인이 주도적으로 이끌고 나가는 교회가 세워지는 과정에서 잠시 역할을 맡고 현지 지도력을 강화하고 예배가 뜨거울 때 지도력이 강화되어 자립할 때 저희는 조용히 무대 뒤로 사라지는 그런 선교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현지 지도력이 세워지는 과정에서 너희는 나를 밟고 올라서라 하고는 나보다 더 크고 영향력 있는 현지 지도력이 세워지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이 되는 선교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gypaek@hotmail.com

인터넷 뉴스 Internet News

사상 최초...종교 박해 오픈소스 데이터베이스 공개

검색창에 ‘중국’ 키워드를 선택하자 총 145건의 박해 데이터가 검색됐다. 기독교 유대교 이슬람교 불교 등 박해를 당한 종교와 함께 사건 일시와 장소, 가해자, 사건 개요 등 구체적인 결과가 나왔다. 미국 종교박해감시단체 글로벌크리스천릴리프(GCF·Global Christian Relief)는 국제종교자유연구소(IRF·International Institute for Religious Freedom)와 함께 사상 최초로 6000건 이상의 종교 박해 데이터를 공개했다고 최근 밝혔다. 이들이 발표한 박해 사건 데이터베이스(VIT·Violent Incidents Database)는 2021년부터 2023년까지의 박해 데이터가 담겨있다. GCF는 지난 2022년 10월 미 오픈도어선교회에서 비롯된 기관이다. 박해국 교회들의 네트워크 형성을 위주로 활동하는 오픈도어선교회와 달리 현장 긴급구호 관련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들은 오픈도어선교회를



기을 갖고 때로 사람들을 배제한다는 사실을 인식하며 겸손하게 들어야 한다. 상처를 주는 언어를 회개하고 그리스도의 영 안에서 듣는 방법과 말하는 내용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적시했다. 또 '노인'과 같은 용어를 피함으로써 '연령차별'을 하지 않고, '인종' 대신 '민족성'을 사용하도록 장려해 '반인종차별적 언어'를 수용하도록 촉구했다. 개인의 이민 신분이나 영어 실력을 부정적으로 강조하는 언어도 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미국 복음주의자 프랭클린 그레함 목사가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그 현지시각 3일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영국 감리교는 부끄러워해야 한다. 그것(남편과 아내)은 성경적 용어이며, 남자와 여자 사이의 결혼은 성경적 진리"라고 밝혔다. 이어 "성경 38권 360여 구절에 '아내'라는 단어가 사용됐다. 그럼에도 영국 감리교는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말하고 가르치는 내용을 문화의 변덕에 맞춰 더 호소력 있게 편집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89년생' 최연소 프랑스 총리 탄생... 마크롱 '돌파구' 되나

프랑스 신임 총리로 가브리엘 아탈(34) 전 교육부 장관이 지명됐다. 아탈 총리를 앞세운 개각은 지지율 하락세를 반전시키기 위한 시키기 위한 예비내각 마크롱 대통령의 정치적 돌파구로 분석된다. 현지 일간 프랑스24에 따르면 엘리제궁은 9일 마크롱 대통령이 아탈을 총리로 임명하고 그에 게 정부 구성을 맡겼다고 발표했다. 아탈은 프랑스 역사상 최연소 총리로 기록됐다. 그가 총리직에 오르면서 1984년 37세에 임명된 로랑 파비우스 총리의 기록은 깨졌다. 제5공화국 최연소 총리이자 공화국 역사상 최초의 공개 동성애자 총리이기도 하다. 아탈 총리는 학생 시절 '최초 고용계약법'에 반대하는 캠페인을 벌였다. 이후 2006년엔 중도 좌파 사회당에 입당했다. 2007년 대통령 선거 당시에는 사회당 세골렌 루아얄 후보 캠프를 돕기도 했다. 아탈 총리는 2012년 마리소 투레인 당시 보건부 장관 밑에서 연설문 작성 등의 임무를 수행하며 정부에서 첫 직책을 맡았다. 2014년에는 지역 시 의원에 출마해 당선됐다. 2016년까지 사회당 당원이던 그는 이후 마크롱 대통령이 창당한 전진하는공화국(LREM)에 합류했다. 이때부터 마크롱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활약하며 탄탄한 정치 이력을 쌓는다. 2018년 당 대변인을 지냈고, 그해 10월에는 29세 나이로 교육담당 국무장관에 올랐다. 마크롱 대통령은 2020년 7월 아탈 총리를 정부 대변인으로 지목했다. 아탈 총리는 마크롱 대통령의 재선 성공 뒤인 2022년 5월 공공 회계 장관에 임명됐고, 지난해 7월엔 교육부 장관직을 맡았다. 교육부 장관 시절 이슬람 전통 의상 '아바야'(전신을 가리는 의복)의 교내 착용을 금지하고, 학생들의 기초 학력 증진 방안을 추진하는 등 교육개혁에 앞장섰다. 지난해 발표한 한 여론조사에서 차기 총리 선호도 1위를 차지하는 등 대중적 인기가 높은 인물이다. 마크롱 대통령은 총리 임명 발표 뒤 엑스(옛 트위터)에 게시글을 올려 "아탈의 에너지와 헌신을 믿는다"며 "국가와 국민을



위해 (대통령에 처음 당선됐던) 2017년 당시의 탁월성과 대담함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아탈 총리 임명은 지지율 하락세를 반전시키기 위한 시키기 위한 마크롱 대통령의 회심의 카드로 볼 수 있다. 마크롱 지지율은 개혁안 강행 등으로 20%대로 추락한 상태다. 현지 일간 르몽드는 "아탈은 마크롱 대통령의 두 번째 5년 임기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야 한다"고 분석했다.

일지진 사망자 202명...대피소, 코로나19 등 감염병 비상

일본 이시카와현 노토반도에서 지난 1일 발생한 규모 7.6의 강진으로 인한 사망자가 9일 200명을 넘어섰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이시카와 현 당국은 이날 오후 2시 현재 노토반도 강진 사망자가 202명으로 집계됐다고 발표했다. 부상자 수는 전날과 같은 565명으로 파악됐다. '연락 두절' 주민 수는 102명으로 전날 323명보다 크게 줄었다. 수색 작업이 진행되고 통신 서비스가 일부 복구되면 연락이 가능해진 주민이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현지 공영방송 NHK에 따르면 이날 이시카와현에선 1만5800가구에 전기가 끊긴 상태다. 도로가 끊겨 접근이 어려운 고립지의 주민도 24곳, 3300명으로 파악됐다. 이시카와현에서 피난 생활을 하는 주민은 2만8000여명으로 이들 중 상당수가 비닐하우스 등 열악한 환경에서 생활하고 있다. 단전·단수로 위생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곳도 많아 감염병까지 번지고 있다. 다케미 게이조 후생노동상은 이시카와현 내 피난소와 고령자 시설에서 전날까지 노로바이러스 등 소화기 감염증 환자가 약 30명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시카와현 시카마치에 설치된 피난소 14곳 중 3곳에선 전날 오후 10시 기준 코로나19에 걸린 피난민이 13명 확인됐다. 독감도 번지고 있지만, 좁은 대피소에서 감염자를 격리해 보호할 공간도 충분치 않은 상황이다. 일본 정부는 국립국제의료연구센터의 감염증 전문의 2명 등 지원인력을 현지에 파견했다. 또 호텔이나 여관 등 유휴 숙박시설을 빌려 대피소로 활용하거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협조를 얻어 피난민들에게 공용 주택을 제공하는 방안도 논의하고 있다.



려했다. 범용반도체는 첨단 반도체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사양이지만, 전자제품이나 자동차, 국방 분야 등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다. 중국특위는 "중국이 필수 기술의 지배적인 공급업체가 되고, 그 지위를 이용해 해외 경쟁업체를 압박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미국 정부가 완제품이 아닌 범용 반도체 자체에 부품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파트너 국가들과 협력할 방법이 무엇인지 등에 대해 답변하라고 요구했다. 미 상무부도 조만간 반도체 공급망 관련한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방산, 자동차, 통신, 항공우주 등 주요 산업 분야의 미국 내 기업을 대상으로 범용 반도체 사용 현황 및 조달처 등을 조사하는 방식이다. 업계는 미국이 중국산 범용 반도체 활용 현황을 파악한 뒤 규제를 통해 조달 비중을 줄여나갈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로이터통신은 반도체 제조업체 엔비디아가 올해 2분기부터 미국의 대중 수출 통제 기준을 충족한 인공지능(AI) 반도체 생산에 돌입할 계획이라고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美 기독교대학들 '등록금 제로' 실험

"이제 대학에서 빚 부담 없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준비할 수 있게 됐습니다. 제가 이 비용을 갚을 수 있는 길은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는 겁니다." 미국 매사추세츠주 보스턴의 기독교 대학 새틀러칼리지 2학년생인 유리아 오테리의 고백이다. 가족 중 처음으로 대학에서 공부한다는 오테리는 이 대학이 이달부터 시행하는 '제로 등록금' 제도의 수혜자가 됐다. 새틀러칼리지 등 미국의 여러 기독교 대학이 다양한 이유로 어려움을 겪는 기독교 학생의 미래를 위해 등록금을 면제하는 제도를 속속 도입하고 있다고 크리스채니티투데이(CT)가 8일 보도했다. 새틀러칼리지는 최근 전교생 80여명 전원에게 등록금을 받지 않겠다고 발표했다. 이 소식이 전해진 뒤 오테리와 같은 많은 학생이 잦은 총장의 사무실로 찾아와 눈물을 흘리며 감사 인사를 했다고 한다. 존슨 총장은 CT에 "젊은 기독교인을 위한 제자도의 길 마련은 교회의 가장 큰 임무 중 하나"라며 "이것은 시대에 대한 투자"라고 강조했다. CT에 따르면 새틀러칼리지 이외에도 펜실베이니아주 제네바칼리지, 인디애나주 그레이스칼리지, 미시간주 호프칼리지 등 가족 소득 수준에 따라 주 거주 학생에게 등록금을 받지 않는다. 미국 기독교 대학들의 사정은 국내와 마찬가지로 녹록치 않다. 코로나19 이후 뉴욕시 북쪽 주의 대학인 킹스칼리지 등 18곳이 재정 문제로 문을 닫았다. 학생 한 명당 연간 수천만 원에 달하는 등록금을 면제하는 시도가 무모한 도전처럼 여겨지는 이유다. 그러나 등록금 면제를 선언한 기독교 대학들은 기독교 정신에 따른 선순환의 구조로 학교 운영 비용을 마련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새틀러칼리지는 입학생 전원에게 등록금을 면제하면서 졸업 후 다양한 형태로 하나님 나라에 헌신할 것 외에 기부 약속을 권장했다. 호프칼리지도 등록금 면제 혜택을 받은 졸업생에게 매년 액수에 상관없는 기부금 서약서를 받고 있다. 두 대학 총장은 미리 약속이나 한 것처럼 마태복음 10장 8절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현실에서 적용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제네바칼리지 측은 이사회와 졸업생 후원 덕분에 재학생 무료 등록금 제도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호프칼리지 매튜 스코건 총장은 "대학이 인생에서 가장 가난한 시기인 학생에게 엄청난 금액의 돈을 내라고 한다"며 "하나님이 그랬듯 우리도 가난하고 연약한 자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美의회 "중 저사양 반도체에도 관세 부과" 촉구

미 의회가 중국의 범용 반도체 시장 지배력 확산을 막기 위해 관세 부과 등의 강력한 대응 조치를 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미 하원 미·중 전략경쟁특위 소속 공화당 마이크 갤러거 위원장과 민주당 소속 라자 크리슈나무르티 간사는 최근 지나 러몬도 상무장관과 캐서린 타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에 중국 범용 반도체에 대한 조치를 촉구하는 서한을 보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들은 서한에서 "미국 정부는 첨단 반도체 기술이 중국으로 이전되지 않도록 강력한 조치를 했지만, 중국산 범용 반도체 급증이 미국 안보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관심은 이에 훨씬 못 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중국이 범용반도체를 장악하는 것을 막는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며 "미국이 중국 범용반도체에 의존하게 되면 경제 번영과 군사 안보가 중국 공산당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위험에 처할 수 있다"고 우



꽃 감리교 '남편' '아내' 용어사용 금지

영국 감리교가 지난해 12월 '남편'과 '아내'와 같은 성별에 따른 용어를 사용하지 말라고 지침을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6개월마다 업데이트되는 해당 지침에는 "하나님의 창조가 인간의 삶에서 표현되는 방식에는 무한한 다양성이 있다"며 "남편과 아내라는 용어가 불쾌하지 않게 들리겠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현실이 아닌 가족이나 개인 생활에 관한 것을 가정하게 만든다"고 지적했다. 적절한 대안으로 '부모', '파트너', '자녀', '보호자'라는 단어들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때로 어려울 수 있는 대화에 용



청교도들의 언약 신학 (9)

이길호 목사
(뉴욕 성실장로교회 원로)



IV. 공동체 (사회, 국가, 가정) 언약 (2)

청교도의 공동체 언약 가운데 정치적 언약 사상에는 하나님, 통치자, 백성 사이의 삼자간 언약을 기초로 한다 (The political covenant was a tri-party agreement between God, the civil ruler, and the people). 청교도들은 하나님께서 통치자들을 세우시고, 그들에게 권위를 부여하여, 그들은 하나님의 권위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법을 적용하여 하나님의 의로운 사회(국가)를 세우도록 부름을 받았다고 믿었다. 국가의 통치자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음을 확신하고, 자신이 모범을 보이면서 백성들을 인도하고, 말씀을 입혀 국가 언약을 기초로하여 그들의 임무를 완수해야 한다. 그들은 항상 하나님 앞에서 경건해야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국가(사회)를 통치하도록 부름을 받

았다. 분명한 것은 자신들의 통치철학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나라를 통치해야 한다. 청교도들의 공동체 언약 가운데 결혼 언약 (Marriage Covenant)을 매우 중요하게 여겼다. 결혼 언약은 한 남자와 한 여자의 상호 언약으로 맺어진 것이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를 두고 있다 (Marriage covenant, though formed by the mutual consent of a man and a woman, was ultimately founded in the creation and commandments of God). 하나님께서 창조 시에 남자와 여자를 사회적 존재 (social beings)로 창조하셨고, 본능적으로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게 하셨다. 부부는 "친구", "파트너", "동반자"로서, 서로 돕고, 사랑하고, 하나님

을 잘 섬길 것을 요구하셨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명하셨고, 그들에게 서로 결합하여 자녀를 낳을 수 있는 육체적인 능력을 주셨다. 청교도들은 결혼 서약을 선언함으로써 (By declaring their marital vows), 부부가 하나님이 명하신 의무를 확인하고 받아들여야 한다고 가르쳤다. 서로는 서로에게 충실함을 약속했다 (Each promised fidelity to the other). 그들은 하나님을 공경하고 결혼에 관한 하나님의 법을 지키겠다고 함께 약속했다. 서로가 이 언약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복을 주신다. 그러나 이 거룩한 언약을 깨뜨리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

청교도 공동체 언약에서 가정은 교회와 국가와 사회에서 가장 기본적인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가르쳤다. 청교도들은 가정에서 사랑과 봉사, 협력과 돌봄, 찬송과 예배와 기도의 공동체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부모의 권위와 규율과 통치의 모범은 교회, 사회 그리고 국가 공동체에 그대로 반영되어야 한다.

부모는 신약으로 아이들을 양육하고 교육했듯이, 그들에게 미국과 하나님에 대한 사랑, 권위와 법에 대한 존경과 복종을 훈련시켰다.

1598년 로버트 클리버 (Robert Cleaver)는 그의 책 "경건한 형태의 가정 정부" (A Godly Form of Household Government)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가정은 작은 국가이며 (a little commonwealth), 좋은 가정에 의해 하나님의 영광이 향상될 수 있다. 그 가정의 가족들은 많은 위안과 다양한 힘을 공급받을 수 있다." 하나님은 인간을 공동체적 (사회적)

인 존재로 창조하셨다 (아담과 하와 및 그 후손들). 하나님은 인간들에게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며, 다양한 교제에 참여하라고 명령하셨다. 청교도들은 국가, 사회, 교회, 가족들 모두 언약적인 존재로 이해했기 때문에 공동체 언약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했다. 모든 공동체는 하나님께서 세우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경영되어져야 한다.

국가는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보여주며, 믿음과 경건함의 가치를 보존하고, 모든 개인이 하나님께 대한 순종을 일깨우도록 부름을 받았다. 국가의 권력자들은 하나님을 대신하여 말씀을 적용하고, 국가 전체의 각 시민들에게 언약적 소명을 이행하도록 부름을 받았다.

교회는 말씀을 전파하고, 성찬을 집행하고, 공평하고 고통받는 자들을 돌보고, 사람들에게 복음과 하나님의 법의 요구 사항을 가르치고, 필요하다면 그들을 훈계하고 징계하도록 부르심을 받았다.

가정은 자녀를 낳아 양육하며, 그들에게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사랑을 심어주고, 하나님의 법과 권위를 존중하며, 순종하도록 가르치도록 부름을 받았다.

국가, 교회, 가정, 각 공동체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고유한 부르심에 따라 특별한 임무와 책임을 맡게 되었다. 그리하여 이 땅에 존재하는 개인뿐만 아니라, 여러 공동체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존재의 목적을 분명히 알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께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막스 베버(Max Weber) 이후 많은 역사가들과 철학자들은 이 언약 교리를

인간, 사회, 법에 대한 현대적 개념의 선구자로 간주해 왔다.

그들은 청교도 언약개념에서 인간의 소명과 책임 (man's calling and accountability)에 대한 청교도의 강조는 볼테르 (Voltaire), 콩트(Comte), 밀(Mill)의 개인주의 이론 (the individualist theories)을 위한 길을 마련했고, 언약의 개념은 로크, 스피노자, 칸트의 사회계약주의의 원형 (a prototype of the social contractualism)이었으며, 그리고 선택된 민족 개념은 (The concept of the elect nation) 루소, 헤르더 (Herder), 헤겔의 민족주의 이론에 영감을 주었으며, 인간의 자유와 의무에 (human freedom and obligation) 대한 이해는 포티에(Pothier), 벤담(Bentham), 랭델(Langdell)의 거래 이론 (the bargain theories)의 기초를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러한 역사학자들과 철학자들이 이해하고 적용하는 청교도의 언약 교리는 잘못 해석하였고, 적용에 있어서도 그 의미를 많이 왜곡시켰다.

청교도의 언약 개념의 시작과 전개 과정에는 철저한 칼빈주의 신학이 기초하며, 그리고 그들의 언약 교리는 개인과 교회 그리고 가정과 국가를 성경적으로 개혁하는 방안이었다. 개인, 가정, 교회, 사회, 국가는 모두 하나님과 언약 상태에 있으며, 언약을 지키지 않을 때는 하나님의 징계가 있다는 사상은 성경적이며, 역사적인 개혁주의 신학의 근본이 된다.

KHL0206@gmail.com

창세기 1장은 성삼위 하나님을 계시하는가?

(2면에서 계속)

창세기 1장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을 하나님이 만물을 생산하시고, 형성하시고, 또 채우시는 데 필요한 수단임을 밝히는 동시에 하나님의 유일한 대리자로서 말씀과 성령을 포함시킨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말씀과 성령으로 창조하신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다른 누군가의 대리인을 통해서 일하시는 게 아니라, 오로지 그분 자신의 능력으로 창조하신다는 것을 다른 방식으로 표현하는 것이다(시 33:6-9; 요 1:3; 롬 11:36; 고전 8:6; 골 1:16; 히 1:2).

그러나 창세기 1장이 삼위일체 신학에서 "말씀"과 "성령"이라는 이름이 갖는 완전한 의미까지 제대로 드러내는 건 아니다. 이 이름들의 온전한 의미는 오로지 성육신으로 오신 말씀과 오순절에 부어진 성령을 통해서만 드러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세기 1장은 하나님이 유일하신 자신의 존재

속에 말씀과 성령을 포함시킴으로써 삼위일체 신학의 또 다른 기본 구성요소를 마련한다. 성경이 나중에 옅어짐과 그분의 말씀 및 성령 사이의 어떤 구분을 밝히는가 아닌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우리는 말씀과 성령을 한 분 하나님과 전혀 다른 별개의 존재로 받아들이는 건 안 된다. 말씀과 성령에 대한 어떤 구분이 필요하다고 해도, 그것은 언제나 유일하신 한 분 하나님 안에서만 이뤄져야 한다.

3. 또 다른 복수형은 어떻게 이해해야 하나?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창세기 1장 속 하나님은 반복해서 복수 명사 "엘로힘"으로 표현된다. 일부 성경 주석가들은 이 복수 명사를 하나님의 삼위일체가 뿜어내는 충만의 표시로 받아들였다. 또 창세기 1:26에 나오는 하나님

님의 복수형 자기표현("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를 창조 사역이 삼위로 이루어진 한 분 하나님의 역사라는 표시로 받아들였다. 그렇다면 이런 복수형은 삼위일체의 숨겨진 현존을 나타내는 표시인가? 창세기 1:26을 보자.

창세기 1:26에 나오는 하나님의 복수형 자기 호칭은 때때로 왕이 복수형으로 자신을 호칭하는 관용적 표현, 소위 말하는 "군주 일인칭"(royal we)의 예로 설명할 수 있다. 또한 이 복수형을 하나님이 소집한 천상 회의 속 천사들을 표현하는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다(욥기 1:6; 2:1). 그러나 이 두 가지 설명 모두 다 가능성이 작다. 첫 번째로 고대 근동에서 로알 일인칭이라는 관용적 표현이 쓰였다는 증거가 부족하다. 두 번째로 천상 회의 주장은 창세기 1장뿐 아니라 성경 전체의 중요한 메시지와 모순된다. 하나님이 창조 사역을 하시는데 굳이 합창단 역할이나 말을 천사들의 도움이 필요할 리가 없다(욥 38:7). 하나님만이

언제나 그분의 유일하고 주권적인 대리인을 통해서 행동하신다. "나는 만물을 지은 여호와와 홀로 하늘을 꿰으며 땅을 펼친 자니라"(사 44:24).

그러면 창세기 1:26의 하나님의 복수형 자기 지칭의 수수께끼는 어떻게 풀어야 할까? 언젠가 로버트 젠슨(Robert Jenson)이 언급했듯이, 창세기 1:26 속 하나님의 복수형 자기 지칭의 잠재적 대상으로 가능한 유일한 후보는 말씀과 성령이다. 이러한 관찰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결정적인 결론에 아직 도달했다고 말할 수는 없다. 삼위일체에 대한 성경의 이중 계시가 주는 어려움을 이해한다면, 구약에서 삼위일체의 계시를 해석할 때 결정적 결론에 도달할 수 없는 경우를 맞는다고 해도 그리 놀랄 이유도 또 고민할 이유도 없다. 구약에서 만나는 삼위일체 계시의 수수께끼는 신약의 삼위일체 계시에 의해서 언제나 해결 가능하다.

창세기 1장은 무대를 만든다

구약성경에 있는 삼위일체 존재에 대한 흔적은 신약성경에 의해서 완전한 체계로 드러나는 삼위일체 계시를 위해서 꼭 필요한 구성 요소를 제공한다. 창세기 1장은 성경 드라마의 주인공, 즉 말씀과 성령으로 만물을 다스리시는 유일하신 하나님을 소개한다. 창세기 1장은 성경 드라마가 펼쳐지는 무대, 즉 삼위일체 하나님에 의해 창조되고, 형성되고, 채워지는 세상을 보여준다. 그리고 창세기 1장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주권적 열심(commitment)의 주된 목적, 즉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피조물을 우리에게 소개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창세기 1장은 성경의 주된 목적, 즉 삼위일체와 그분을 위해 창조되고, 구속되고, 또 완전해진 백성 사이의 연합과 교제를 촉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by Scott Swain, TGC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기타지역 교회

<p>갈보라장로교회</p> <p>담임목사: 조용철</p> <p>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오후예배: 오후 2:00 수요기도회: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오전 6:00(토)</p> <p>Tel: (702) 679-7576, Fax: (702) 257-9191 6554 W. Desert Inn, Rd. Las Vegas, NV 89146</p>	<p>다민족교회</p> <p>담임목사: 홍귀표</p> <p>주일예배: 오전 11:30 주일그림교제/기도회: 오후 1:00 주일학교: 오전 11:30 수요성경공부/기도회: 오후 8:00 다민족찬양집회: 매주(목)오후 4:00-7:00</p> <p>Tel: (773) 802-1112, estross@yahoo.com 6050 W. Touhy Ave. Chicago, IL 60646</p>	<p>몽고메리교회</p> <p>담임목사: 최해근</p> <p>주일 1부예배: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전 10: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수요예배: 오후 8:00 금요기도회: 오후 8:00 태일새벽기도회: 오전 6:00</p> <p>Tel: (610) 222-0691, 267-471-7777, Fax: (610) 222-0692 3260 Morris Rd. Lansdale, PA 19446</p>	<p>벅스카운티장로교회</p> <p>담임목사: 김인환</p> <p>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0: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영 아 베: 오전 10:00 수요찬양예배: 오후 8:00</p> <p>Tel: (215) 945-0288, Fax: (215) 945-2095 1550 Woodbourne Rd. Levittown, PA 19067</p>	<p>벤틀교회</p> <p>담임목사: 백성중</p> <p>주일 1부예배(한): 오전 7:00 주일 2부예배(한): 오전 8:15 주일 3부예배(한):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찬양): 오후 1:45 1부예배: 오전 10:00 수요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p> <p>Tel: (410) 461-1235, www.bethelchurch.org 3165 St. Johns Lane, Elkcty, MD 21042</p>	<p>보스톤장로교회</p> <p>담임목사: 장성철</p> <p>주일 1부예배: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토요새벽기도회: 오전 5:30 금요찬양집회: 오후 8:00 영기, 유년, 종교대학: (주일) 오전 11:00, (금) 오후 8:00</p> <p>Tel: (608) 435-4579, www.bostonkorea.org 2 Main St. Hpkinton, MA 01748</p>
<p>센터빌 한인장로교회(PCA)</p> <p>담임목사: 차용호</p> <p>주일 1부예배: 오전 7:00 주일 2부예배: 오전 9: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주일 4부예배: 오후 1:00 초, 중, 고, 대학부 예배: 오전 11:00 주일영양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매일 오전 6:00</p> <p>Tel: (703) 681-9235, www.kccncc.org 25454 Gum Spring Road, Little Rock, AR 72712</p>	<p>알칸사 제자들교회</p> <p>담임목사: 전남수</p> <p>주일오전예배: 오전 11:00 주일오후예배: 오전 3:30 수요예배: 오후 7:30 금요찬양: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6:00(월-토)</p> <p>Tel: (501) 920-9049, www.jesus.com 600 Kirby Rd. Little Rock, AR 72711</p>	<p>앵커리지열린교회</p> <p>담임목사: 함성주</p> <p>주일 1부예배: 오전 10: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영아예배: 오전 11:00 주일저녁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7:00</p> <p>Tel: (907) 344-6446, Fax: (907) 344-3182 8200 Brennan St. Anch, AK 99518</p>	<p>영생장로교회</p> <p>담임목사: 정승환</p> <p>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45 주일 4부찬양예배: 오후 1:30 수요예배: 오후 7:45 금요기도회: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p> <p>Tel: (215) 945-1512, Fax: (215) 945-9037 706 Wilmer Rd. Horseshoe, PA 19044</p>	<p>킬린은누리교회</p> <p>담임목사: 김성만</p> <p>주일예배 1부: 오전 9:00 주일예배 2부: 오전 10:50 수요찬양예배: 오후 7:00 금요리본예배: 오후 8:00 토요청년모임: 오후 3:00 새벽예배: 오전 5:30(화-금)</p> <p>Tel: (254) 635-1824(H), (254) 501-4933(C) 1000 E. Veterans Memorial Blvd, Killeen, TX 76541</p>	<p>워싱턴메시아장로교회</p> <p>담임목사: 한세영</p> <p>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후 1:30(EM) 수요예배: 오후 8:00 금요기도회: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5:30(월-토)</p> <p>Tel: (703) 841-4447, www.mccc.org 4313 Markham St. Annandale, VA 22003</p>
<p>타코마 한인장로교회</p> <p>담임목사: 박장호</p> <p>주일 영아예배: 오전 8시 주일 1부 예배: 오전 9시 50분 주일 2부 예배: 오전 11시 주일 찬양예배: 오후 1시 수요 예배: 오후 7시 새벽 기도회: 오전 5시 30분 (화-토)</p> <p>Tel: (253) 536-6675, www.kccncc.org 9424 S. Yakima Ave., Tacoma, WA 98444</p>	<p>미주크리스천신문 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p> <p>■ L.A.: Tel. (323) 665-0009 lchpress@gmail.com ■ N.Y.: Tel. (718) 886-4400 nychpress@gmail.com info@chpress.com</p> <p>세계로 뻗어가는 복음신문...</p>	<p>미주크리스천신문 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p> <p>■ L.A.: Tel. (323) 665-0009 lchpress@gmail.com ■ N.Y.: Tel. (718) 886-4400 nychpress@gmail.com info@chpress.com</p> <p>세계로 뻗어가는 복음신문...</p>	<p>미주크리스천신문 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p> <p>■ L.A.: Tel. (323) 665-0009 lchpress@gmail.com ■ N.Y.: Tel. (718) 886-4400 nychpress@gmail.com info@chpress.com</p> <p>세계로 뻗어가는 복음신문...</p>	<p>미주크리스천신문 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p> <p>■ L.A.: Tel. (323) 665-0009 lchpress@gmail.com ■ N.Y.: Tel. (718) 886-4400 nychpress@gmail.com info@chpress.com</p> <p>세계로 뻗어가는 복음신문...</p>	<p>미주크리스천신문 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p> <p>■ L.A.: Tel. (323) 665-0009 lchpress@gmail.com ■ N.Y.: Tel. (718) 886-4400 nychpress@gmail.com info@chpress.com</p> <p>세계로 뻗어가는 복음신문...</p>

신앙칼럼

차용호 목사 (센터빌 한인교회)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New Wine into New Wineskins)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는 새해가 되면 많이 쓰는 말입니다. 새로운 2024년 첫 주일 신년예배를 맞는 중요한 시기에 지구촌의 공동체에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루는 세례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당시 세례요한은 헤롯왕을 책망하다가 투옥된 상태였습니다. 세례요한은 광야에서 지내며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며 절제와 금욕생활을 했습니다. (막 1:6) 세례요한의 제자들도 금식과 기도로 철저한 경건생활과 금욕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세례요한의 제자들이 볼 때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죄인들과 세리들과 함께 잔치를 벌이셨습니다. 세례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항의성 질문을 하며 따져 물었던 것입니다. 그 때에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아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시나이까? (마 9:14) 당시 유대교에서는 금식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장려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일주일에 월요일과 목요일에 2번씩 금식했습니다. 그 외에도 틈만 나면 수시로 금식하였고 이것을 대단한 자랑거리로 생각했습니다. 금식이 자기가 의롭게 살고 있다는 기준이 되어 버렸습니다. 바리새인의 기도를 보면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눅 18:12) 세례요한의 제자들 입장에서 자기들도 금식하고 바리새인들도 금식하는데 왜? 유독 예수님의 제자들은 금식을 하지 않느냐? 그 따졌던 것입니다. 이들은 자기들은 무척 잘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잘못하고 있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자기들은 의로운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의롭지 않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게 바로 바리새인의 생각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세례요한의 제자들의 잘못된 태도를 바로잡고자 오늘의 3가지 비유를 통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첫 번째 비유가 혼인집 손님비유입니다. (마 9:15) 혼인집 손님은 신랑과 함께 있기 때문에 금식할 필요가 없지만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러니 그 때에는 제자들이 잔치만 하는 것이 아니라 금식하며 슬퍼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생배조각 비유입니다. 생배조각을 낫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됨이요(마 9:16) 여기서 생배조각은 예수님의 가르침인 복음을 말하고 낫은 옷은 유대교의 낫은 전통이나 의식을 가리킵니다. 금식이라는 전통과 의식은 낫은 옷에 불과한 것이니 예수님의 가르침인 생배 조각 같은 복음과는 같이 섞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새 포도주 비유입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돌이 다 보전되니라.(마 9:17) 가족부대가 오래되면 신축성이 떨어져서 뻣뻣해지고 바느질한 부분이 느슨해집니다. 여기다가 발효되지 않은 새 포도주를 담으면 새 포도주가 부글부글 발효되면서 부풀어 올라와 결국 낫은 가족부대가 신축성이 떨어져 터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생배 조각은 예수님의 가르침인 복음을 말하고 낫은 옷은 유대교의 낫은 전통이나 의식을 가리킵니다. 새 포도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 있는 복음을 가리킵니다. 낫은 가족부대는 오래된 유대교의 낫은 전통과 관습을 가리킵니다. 세례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고 왜? 금식을 안 하느냐고 비난하는 것은 마치 예수 그리스도의 새 복음을 낫은 유대교의 의식에 억지로 쑤셔 넣으려는 것과 같은 억지입니다. 금식과 같은 유대교의 낫은 전통에다가 생명력이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이나 복음을 담으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이 3가지 메시지를 줍니다.

첫 번째 새 포도주와 낫은 가족부대(New Wine and Old Wineskins) 예수 그리스도의 새 복음인 새 포도주는 새 가족부대에 넣어야 합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돌이 다 보전되니라(마 9:17) 예수 그리스도의 새 복음을 낫은 유대교의 의식에 억지로 쑤셔 넣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 믿고 여러분의 신분이 새로운 피조물로(고후 5:17) 신분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예수 믿고 여러분의 신분이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벧전 2:9)로 변화되었습니다. 눈부신 신분의 변화입니다. 그런데 왜? 아직도 옛사람의 낫은 가족부대를 버리지 못하는가? 예수님의 복음은 새 포도주를 변화 받은 새 부대에 넣어야 합니다.

두 번째 새 포도주가 되는 복음(Gospel as New Wine) 새 포도주인 예수의 복음을 새 부대인 초대교회에 담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새로운 복음시대가 왔다고 선언하십니다. 그 설계대로 시공되어진 교회가 바로 1세기의 초대교회요 사도행전의 교회입니다. 예수님께 3년간 훈련을 받은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과 사도바울이 주된 사역자였습니

다. 이 초대교회는 그 시대적 사명을 완수했습니다. 예수님의 12사도와 사도바울이 중심이 된 초대교회는 로마제국의 그 모진 박해에도 굴하지 않고 새 포도주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소아시아와 유럽과 로마에까지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모진 박해에도 수백 년 동안 카타콤속에서 믿음을 지켰습니다. 결국 2%의 초대교인들은 거대한 로마제국을 굴복시켜 버렸습니다. 초대교회는 살아있는 교회역사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서기 313년에 로마의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 되자 기독교는 급속도로 제도화되고 형식화되고 생명력을 잃고 말았습니다. 중세기에 와서 다시 낫은 가족부대를 취하게 된 것입니다. 머리 깎인 삼손의 힘 빠진 가족부대 모습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때 마틴 루터에 의해서 1586년에 종교개혁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교회로까지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세 번째 2024년 목표(Goals for 2024)는 새 부대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마 9:17) 새 포도주라는 말은 새로 만든다는 뜻이 있습니다. 다른 뜻으로는 시간상으로 새로운 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우리는 2024년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2023년과 2024년이 다른 것은 시간상으로 달라진 것입니다. 2024년을 성공적으로 살아가려면 말씀으로 돌아가 살아가야 합니다. 2024년도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하루를 시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므로 평탄하게 되고 험푼한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수 1:8)

2024년도를 새 부대에 새 술인 복음을 가득 담아 미국에 50개 주에 5대양 6대주에 마음껏 퍼 날라주어 지구촌에 그리스도의 푸른 계절이 풍성하게 임하는 주인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chayongho@hotmail.com

사·모·칼럼

허양희 사모 (텍사스 오스틴 주님의교회)



싸움닭 vs 우아한 백조

오십 대 중반이다.

새해를 맞는 마음가지가 예전 같지 않다. 심한 갱년기 앓이를 지내서인지 올해는 좀 더 새로운 삶에 대한 기대가 있다. 지난해는 불면증으로 하루에 두서너 시간만 자면 눈이 말뚱말뚱해서 뜯 눈으로 새벽을 지새우기 일쑤였고 관절통과 소화기 장애로 삶의 질은 바닥을 쳤다. 경건의 훈련을 매년 꾸준히 지속하며 살아온 세월이 무색할 정도로 하나뿐인 배우자, 그렇게도 헤어지기 싫어서 결혼한 동반자에게는 굳은 말이 쉽사리 가지 않았다. 조금이라도 심기를 건드리는 언행을 할 때면 감정 조절이 잘 되지 않아 푹 쏘는 벌처럼 쏘아버리고 배우자의 사소한 언행에 심하게 흔들리며 내 마음 나도 모르는 반응을 하곤 했다. 반동지증후군이라 하였던가! 작년에는 실상가상으로 세 아이 모두 집을 떠나고 나니 그 허전함은 삶의 지축을 흔들었다. 호르몬의 변화가 이렇게 삶에 큰 영향을 주리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

사십 대 중후반부터 시작하여 완경이 된 후 일 년 정도까지를 일컫는 갱년기는 여성 호르몬의 부족으로 인하여 안면 홍조, 가슴 두근거림, 발한, 우울증, 불면증, 신경질, 관절통, 근육통 등 여러 가지 증상으로 나타난다. 여성 호르몬은 신경 전달 물질에 관여하고 있기에 이것이 부족하면 우울감이나 성격의 변화가 나타나는 것이다.

갱년기 증상은 자연스러운 몸의 변화지만 본능의 흐름대로 감정을 방치할 경우 이는 삶의 큰 적신호가 될 수 있다. 특히 가장 가까이에서 오랜 시간 함께한 배우자에게 큰 상처를 입힐 수 있고 자녀들에게도 마음에 쓴 뿌리를 남길 수 있기에 이에 대한 적절한 대안이 필요해 보인다.

발달 심리학자이자 정신 분석가인 에릭 에릭슨은 중년기를 생산성 대 침체성으로 설명하였다. 침체성의 전형으로는 매사에 불평불만을 일삼고 비판적인 태도를 보이며 삶을 따분하고 지루하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반대로 생산성은 성숙한 성인으로 다음 세대를 구축하고 인도하는 일에 관심을 두는 것을 나타낸다.

모든 인생이 지나가는 중년기를 어떻게 보내야 할까? 환경과 삶을 비판하며 가정의 싸움닭이 될 것인가 아니면 다음 세대를 세우는 건설적이고 생산적인 일에 삶을 드리는 우아한 백조가 될 것인가?

삶의 중년을 맞이까지 충분하지 않은 생활비로 자녀를 양육하며 남편을 뒷바라지하고 부르심을 충성스럽게 이루기 위해 사명지에서 온갖 수모를 견디며 헌신한 사모님들의 노고에 큰 박수를 보내고 싶다.

심란한 시기를 보내는 동안 남편의 조력이 얼마나 위로가 되었는지 모른다. 사랑해서 결혼한 배우자가 나와 결혼했는지 목회와 결혼했는지 헷갈리지 않도록 따뜻한 관심과 사랑으로 사모님들의 마음을 알아주고 감정을 공감해 주는 목사님들이 많았으면 좋겠다. 결핍된 정서는 날카로운 언행으로 가정에 화를 불러오지만, 채워진 정서는 부드러운 언행으로 가정을 살릴 것이기 때문이다.

yanghur@gmail.com

Worldwide Church Directory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listing various churches and their pastors across different regions like NY, NJ, Hawaii, and Mexico.

목회서신



김요섭 목사 (열매교회)

하나님의 생각이 나의 생각이 되는 소망

사람은 자신의 삶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판단하고, 해석하는 자기 나름대로의 판단 기준, 가치관, 세계관이 있습니다. 사건 사고가 일어났을 때 왜 그런 일이 벌어졌는지에 대해서 자신의 관점에서 받아들이고 의미를 부여합니다. 장엄한 자연 광경을 보면서 자신이

느끼는 감동, 감정을 표현합니다. 우리는 똑같은 일을 경험하고, 똑같은 모습을 보았는데, 모두가 똑같은 생각, 똑같은 느낌을 갖지 않게 됩니다. 바라보는 시선, 바라보는 감정에 따라서 서로 다른 결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책을 출판하기 위해서 책 표

지 디자인을 선택해야 했습니다. 출판사로부터 다섯 가지 시안을 받았습니다. 다섯 가지 디자인이 모두 좋아서 어떤 것을 골라야 할지 고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변의 목사님들과 성도님들께 의견을 구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사람마다 자신이 좋아하는 색상, 좋아하는

그림, 좋아하는 글씨체는 다를 수 있지만 그래도 보편적인 선호도를 알아보고 싶었습니다. 목사님들과 성도님들께 다섯 가지 시안을 보내주고 본인이 어떤 표지 디자인을 선택할 것인지 물어보았습니다. 모두가 자신의 개인적인 취향에 의거해서 자신의 마음에 드는 디자인을 선택하여 의견을 보내주었습니다. 의견을 수렴한 결과 나로 하여금 생각을 하게 만드는 한 가지 사실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목사님들의 취향과 성도님들의 취향이 달랐다는 사실입니다. 성도님들이 선호하는 색상과 디자인은 목사님들이 고른 것과는 사뭇 달랐습니다. 목사님들이 바라보는 관점, 느낌, 생각이 성도님들이 바라보는 관점, 느낌, 생각에 차이가 있었습니다.

목회자의 생각과 평신도의 생각이 때로는 다를 수도 있다

는 것을 깨닫는 순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나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인가? 로마 장교인 고넬료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시각과 베드로의 시각은 달랐습니다. 베드로는 이방인 로마군인 고넬료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은 생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만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을 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아집에 빠져있는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며 베드로의 생각을 바꾸십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깨달아 놓고 하나님의 생각에 순종하여 고넬료의 집으로 발걸음을

옮깁니다. 우리는 여러 소망들을 가지고 한 해를 시작합니다. 자신에게 있어서 너무나 중요하고 소중한 것들 간절하여 꼭 성취되기를 바라는 소망일 수 있습니다. 나의 소망, 나의 생각이 하나님의 뜻이고 생각이라면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하지만 나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이 아닌 나의 욕심이라면 하나님은 나의 생각을 바꾸게 하십니다. 될 것 같은데 더디게 하시고, 실패하게 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의 생각은 너의 생각과 다르다는 음성을 들려주시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생각이 나에게 있어서 최고의 길이요 생명의 길이요 축복의 길이 때문입니다. 올 한 해도 하나님의 생각이 나의 생각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yosupbois@gmail.com

2023 유스하이얼링 컨퍼런스 성황

순무브먼트(전 KCCC USA, 대표 오윤태 목사)와 미주성서화운동본부(공동대표회장 송정명 목사, 진유철 목사)가 주관한 2023유스하이얼링 컨퍼런스(Youth Higher Calling Conference)가 지난 2023년 12월26일(화)부터 12월29일(금)까지 Shraton Fairpex

을 뿐만 아니라 아이들의 손을 잡고 컨퍼런스 참석한 부모들도 있었다. 물질적인 후원도 있었지만 무엇보다 기도가 힘이 되었다"며 "이번 컨퍼런스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고 계시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1세대들이 다음세대에 대한 영적교육

이번 행사 강사로는 오윤태 목사를 비롯하여 Victor Chayasirisobhon 목사(First Southern Baptist Church of Anaheim), Hung Thach 목사(Director of High School Ministry of Cru Los Angeles), 이영 목사(Cru Staff of Epic and Cru Inner City), 안 진 목사(College pastor

시간을 가졌다. 이번 컨퍼런스에 참석한 허원녕 목사(오렌지 중앙성결교회 유스담당)는 "조그만 교회들은 인력부족으로 수련회 준비가 어려운데 순미니스트리를 비롯한 여러 교회들이 함께 컨퍼런스를 열어 작은 교회들도 참석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었다"며 "컨퍼런스 기간 동안 좋은 강사들이 참석하여 도전이 되는 말씀을 선포했으며 8개 세미나



2023유스하이얼링컨퍼런스가 성황리에 열렸다

"무릎 꿇고 기도하는 모습 속에서 영적부흥 확인"

Hotel에서 "청소년들을 그리스도에게로"라는 주제로 성황리에 개최됐다. 오윤태 목사(순무브먼트 대표)는 "이번 학생 집회에 교회들이 적극적인 동참이 있었

이 성공했다고 생각한다. 아이들이 무릎 꿇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이들안에 영적 부흥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 감사했다"고 말했다.

at Living Hope Community Church)가 강사로 참여해 은혜와 도전이 되는 말씀을 나누었다. 이번 컨퍼런스는 6번의 전체집회, 순장 모임, 스물그룹 모임, 아침 QT, 소울케어

를 통해 아이들이 좀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계기가 되어 감사했다"고 말했다. 500여명이 참석한 이번 하이얼링 컨퍼런스는 남가주 지역 교회들 외에 아리조나,

샌디에고, 북가주에 있는 한인 교회에서도 참석했으며 중국 교회에서도 참석하여 눈길을 끌었다. 주최측은 "이번 집회를 통하여 60명이 새롭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겠다는 결심을 하게 되었고 또한 70명은 목회자로 헌신을 결심하는 놀라운 열매를 맺게 되었다"고 알려졌다. (박준호 기자)

CT, 중국 교회와 기독교인들 ZOOM 사용에 어려움 겪어

(1면에서 계속) 중국에서 메타, X(구 트위터), 구글 등 많은 기술 기업의 사용이 금지된 상황에서 Zoom은 팬데믹 기간과 그 이후 온라인 모임으로 전환한 가정 교회의 생명줄이 되었다. 이 앱은 사용자에게 친화적일 뿐 아니라, 정부 감시로부터 자유로운 소통을 원하는 미등록 교회가 비교적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다만, 중국 내 유지를 위해 본 회사는 민감한 표현을 자제하는 데 동의했다). 우챗은 민감한 용어가 포함된 대화를 차단하거나 메시지를 삭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기독교인들은 Zoom에서 이러한 문제에 직면하지 않았다.

서에 따르면, 2019년 중국 당국이 Zoom 회사가 반정부 발언을 억압하는 데 충분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차단하자, 에릭 위안 CEO는 중국을 방문해 중국 공산당이 민감한 주제에 대한 대화를 모니터링하는 데 동의했다. 그 후 중국에서의 Zoom 서비스가 재개되었다. 이러한 감시의 증거는 2020년 중

교회는 소규모 그룹으로 나누어 모든 회의에 Zoom을 사용하기 시작했다. 온라인 모임의 한 가지 장점은 리우 목사의 교회가 더 많은 사람에게 다가갈 수 있게 되었다는 점이다. "도시 주변의 시골에 사는 교인들과 노약자나 몸이 아픈 교인들도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난달에는 리우 목사의 교회에서도 Zoom에 로그인할 수 없었다. IT분야에 어느 정도 경험이 있는 리우 목사는

사용하는 중국 사용자가 외국 계정으로 설정된 Zoom 미팅에 참여하려고 할 때 오류 메시지를 받는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그녀는 중국 정부가 현지인들에게 더 큰 리스크를 수반하는 제3의 파트너를 사용하도록 강요하고 있다고 생각했다. "그대가 회의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이 기록하는 모든 데이터가 중국에 저장됩니다"라고 첸은 말한다. "우리에게는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중국에서는

다." 중국 대도시의 한 가정 교회 목사인 아룬 자오도 이에 동의하며, 자신의 교회는 Zoom으로 주일 예배를 생중계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의 신도들은 여전히 온라인 기도 모임에 가상 회의 앱을 이용한다. "점점 더 많은 사람이 온라인 모임에 참여하는 것이 불가능해졌다고 말합니다. Zoom 회의에 들어갈 수 없는 경우도 있고, 소리가 나지 않거나 영상이 나오지 않는 경우

대부분이 "나이가 많고 교육 수준이 낮은 사람들로 기술이 너무 어렵고, 일반적으로 암시장에서만 구입할 수 있는 VPN과 같은 방법은 악성 소프트웨어 등 자체적인 안전 위험이 있기 때문"이라고 그는 말한다. 중국 동부 해안의 교회 지도자인 샤야 투도 VPN 사용에 대해 비슷한 의구심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그는 가정 교회와 친목 모임에서 필요한 기독교

목회자들이 주로 사용하는 화상 회의 플랫폼에 기술적 문제가 발생하면서 새로운 방안을 찾고 있다

에서 가장 민감한 역사적 사건 중 하나인 천안문 64 항쟁 추모일에 Zoom 집회를 중단하고 중국 당국의 요청에 따라 해외 반체제 인사들의 계정을 차단한 사건에서 드러났다.

Zoom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제출한 연차보고서에서 중국에서의 사업 위험성에 대해 언급했다: "중국 정부는 때때로 경고 없이 중국 내 서비스를 중단했으며, 서비스를 복구하기 전에 법 집행 요청을 위한 사내 연락처를 지정하고 미국에 있는 중국 기반 사용자 데이터를 중국 내 데이터 센터로 이전하는 등 특정 조치를 하도록 요청했다." 2020년 8월부터 중국 사용자는 제품을 직접 구매할 수 없었다. 대신 현지 타사 파트너를 통해 서비스를 구매해야 한다. 정부의 감시를 우려한 일부 기독교인들은 중국내에서 사용하기 위해 미국에서 Zoom 라이선스를 구매하는 방식으로 대처했다.

결국 교회 예산의 상당 부분을 특정 소프트웨어 구입에 지출한 후에 Zoom을 작동시킬 수 있었다(리우 목사는 "중국 정부에 아이디어를 주고 검열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은 공유하지 않았다). 도시 가정 교회의 해외 사역 리더인 솔로몬 리는 지난 몇 달 동안 Zoom에 대한 광범위한 불만을 들을 수 있었다. 그는 "중국 관리방화벽의 일부라고 생각하며, 중국에서도 Zoom이 현지 법률을 준수하도록 강요받고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현지 교회와 조직에서 Zoom을 사용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중국 동부의 한 신학교에서 근무하는 사라 첸은 이런 경험을 했다. 그녀는 8월 이후 신학교와 관련된 가정 교회를 위해 구입한 20개의 Zoom 라이선스 중 18개가 비활성화되었다고 말했다(10월이 지나자, 나머지 2개도 작동을 멈췄다). 첸은 5월에 미국에서 1년짜리 라이선스를 구입하는데 2,000달러를 썼다고 말했다. 그녀가 Zoom에 전화를 걸었을 때 회사는 그들의 활동이 현지 법률을 위반했으며, 미국 버전의 Zoom은 중국에서 허용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한 Zoom은 라이선스에 남은 9개월에 대한 환불도 거부했다. 최근 첸은 무료 버전의 Zoom을

Zoom의 비즈니스 계정(라이선스 10개 이상 구매해야 하는)만 사용할 수 있다. 현재 이 신학교는 특히 회의를 녹화하거나 준비할 때 Zoom만큼은 사용자 친화적이지 않은 Webex를 주로 사용한다.

대면 예배만 허용하는 교회

모든 가정 교회가 Zoom이나 다른 온라인 회의 앱을 사용하는 것은 아니다. 일부 교회는 의도적으로 온라인 모임을 피하기도 한다. 상하이의 시밍 목사는 자신의 교회가 코로나19 봉쇄 기간 Zoom을 사용했지만, 대면 모임을 재개한 2월부터 사용을 중단했다고 말한다. 보안보다는 실용적인 이유가 더 컸다: "Zoom이 허용되는 한, 사람들은 대면 교회 모임에 오지 않을 핑계를 찾을 것입니다"라고 시밍 목사는 말했다. 소그룹 리더인 웡은 미래의 기술 금지 조치에 대비하기 위해 교회가 기술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야 한다고 생각한다. 대신 목회자와 교회 지도자들은 "함께 모일 수 있는 인원이 적더라도 가능한 오프라인 목회를 진행해야 합니다"라고 웡 목사는 말한다. "목회자들은 가능한 한 교인들을 직접 찾아가서 모든 신자를 돌보는 데 더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쏟아야 합니

VPN에 대한 논쟁

가정 교회 신도들에게 중국에서 불법인 VPN 사용을 권장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서로 다른 입장을 가지고 있다. 드물지만 중국 정부는 VPN 사용자에게 벌금을 부과하고 체포하는 경우도 있다. 한편 자오 목사의 교회와 같은 교회들은 VPN 사용을 권장한다. 그는 교회가 "장벽 없이 소통하고 검열을 피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라고 말했다. 또한 "신자들이 더 많은 정보원을 확보하고 뉴스의 양쪽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 공산당이 통제하는 국내 언론에 노출되지 않습니다"라고 말했다. 반면, 리우 목사의 교회는 개인적으로 VPN을 사용하더라도 교인들에게 VPN 사용을 권장하지 않는다. 그 이유는 교인

자료들에 접근하기 위해 VPN을 사용하는 것이 불가피할 수 있다고 믿는다. 지난 몇 년 동안 중국 정부는 온라인 기독교 웹사이트와 우챗 계정을 차단하고 기독교 독립 출판사들을 폐쇄했다. "저는 중국의 기독교인들이 지식과 교육에 있어만 리방화벽에 갇혀 있고 외부 세계에 대해 더 많이 배우고 미래 지향적인 비전을 가지기를 바랍니다"라고 투는 말한다. 그는 해외 소식통을 통해 중국의 실제 상황을 파악하는 것이 기독교인들이 향후 사역에 직면할 도전에 대비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믿는다.

그러나 중국 정부가 중국인들의 외부 세계와의 접촉을 차단함에 따라 교회는 일상적인 운영뿐만 아니라 중국의 현재 상황이 어떻게 "성도들을 더 잘 제자화 할 기회"가 될 수 있는지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어떤 도구도 관리방화벽을 넘을 수 없고 중국 네트워크가 폐쇄적인 인트라넷이 되는 날이 올 수도 있습니다"라고 투는 말한다. "그렇게 되면 관리방화벽 밖의 기독교인들이 제공할 수 있는 도움은 제한적일 것 같습니다. 따라서 현재와 같은 박해 상황에서 중국 기독교인들이 영적 부흥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by Sean Cheng & Angela Lu Fulton

중국에서의 Zoom의 도전

중국에 상당한 규모의 개발 팀을 두고 있는 미국 기업 Zoom은 중국 기독교인들에 대한 우려가 없는 것은 아니다. CyberScoop이 공개한 법원 문

동부교계 기사판

디모데목회훈련원 목회자세미나

디모데목회훈련원(원장 이용걸 목사)에서 목회자세미나를 다음과 같이 개최한다. 강사: 이용걸 목사(필라델피아 영생장로교회 원로목사, 디모데목회훈련원 원장), 참가자격: 교회 개척하시는 목사 및 사역하시는 부목사 및 전도사. 일정: 뉴저지 동산교회(담임 윤명호 목사) 1월 29일(월)~30일(화), 얼바인 베델교회(담임 김한오 목사) 2월 19일(월)~20일(화), 버지니아 코이노스영생장로교회(담임 오건 목사) 3월 4일(월)~5일(화).

▲문의: 디모데목회훈련원 201-954-1193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 뉴욕노회 신년하례예배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 뉴욕노회(노회장 임병순 목사)는 신년하례예배를 1월 15일(월) 오전 11시 새사람교회에서 연다.

▲문의: 917-767-9191

뉴욕교협, 신년감사예배 및 하례만찬

뉴욕교협(회장 박태규 목사)은 2024년 1월 16일(화) 오후 5시 KCS(한인봉사센터)에서 2024 신년감사예배 및 하례만찬을 연다.

▲문의: 646-818-4252, 845-848-2013

복음뉴스 창간 7주년 감사예배

복음뉴스(김동욱 목사)는 창간 7주년을 맞이하여 감사예배 및 기념식을 1월 21일(주일) 오후 5시 뉴욕만나교회(담임 정관호 목사)에서 갖는다.

▲문의: 516-241-6024

뉴욕총영사관, 2024 상반기 뉴저지 현장민원 공지

뉴욕총영사관(총영사 김의환)은 2024년 상반기 민원업무를 매월 첫째, 셋째 수요일 오전 9시부터 정오까지 뉴저지한인회관에서 진행한다. 뉴저지한인회관(21 Grand Ave., #216B, Palisades Park, NJ 07650)

▲문의: 201-945-9456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 뉴욕노회 신년하례회 참석자들이 사진 촬영했다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 뉴욕동노회, 신년하례회

“우리가 걸어간 그 발걸음을 누군가 따라 올 텐데...”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 뉴욕동노회(노회장 문덕연 목사)는 1월 8일(월) 오전 11시 뉴욕참교회(시무 문덕연 목사)에서 2024 신년하례회를 개최했다.

노회장 문덕연 목사의 인도로 시작한 예배는 기도 문신언 목사, 설교 황상하 목사, 축도 조문휘 목사 순으로 진행됐다.

황상하 목사는 ‘주의 인자와 성실하심 (시 89:1-4, 19-26)’이라는 제목을 통해 “다윗은 ‘내가 여호와와 인자하심을 영원히 노래하며 주의 성실하심을 대대에 알게 하리이다’라고 노래를 불렀다.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깨닫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이 하신 일, 지금도 하고 계시는 일에 집중하는 것이다. 이것을 집중하게 될 때 예민한 감수성이 생기고 깨달음이 생겨서 노래하게 될 것이고 증거 하게 될 것이다. 새해에는 진실로 다윗 같은 노래와 시를 읊으면서 살아가는 모두가 되기를 바란다”고 설교했다.

이어 김남수 목사(뉴저지 시

찰), 이규섭 목사(뉴욕 시찰)의 신년덕담의 시간을 가졌다.

김남수 목사는 “우리 한국 선배 목사님들 중 양떼들을 사랑으로 돌보았던 손양원 목사님과 일사각오의 신앙을 가졌던 주기철 목사님의 신앙을 본받아야 한다”며 “우리가 걸어간 그 발걸음을 누군가 따라 올 텐데 하나님 앞에, 교회와 사람들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올 한해와 남은 목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신년덕담을 전했다.

이규섭 목사는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에 동참하는 것을 뜻대로 삼고 고난 없이 부활이 없으니 그것을 알고자 그 고난에 참여한다고 표현했다”며 “지금 목회현장은 힘이 들고 어려운 상황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시대를 맡겼다. 고난을 견뎌내고 부활이라는 꽃대를 똑바로 바라보고 나아가면 고난도 감당할 수 있으니 승리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점심식사 후에는 탁구 대회를 열고 친목을 도모했다. (홍현숙 기자)

“시작도 ‘할렐루야’ 마침도 ‘할렐루야’”

뉴욕교협, 신년감사예배 및 하례만찬 3차 준비기도회

뉴욕교협(회장 박태규 목사)은 1월 4일(목) 오전 10시30분 뉴욕베데스다교회(시무 김원기 목사)에서 신년감사예배 및 하례만찬 3차 준비기도회를 열었다.

이장종 목사(부회장)의 인도로 시작한 1부예배는 경배와찬양 주빌리 찬양팀(인도 이광선 찬양사역자), 기도 조엔이 권사(이사장), 성경봉독 마리아 오

권사(이사), 설교 박태규 목사(회장), 헌금특송 이광선 찬양사역자, 헌금기도 송일권 목사(수석협동총무), 광고 유승례 목사(신년하례준비위원장), 축도 신현택 목사(증경회장) 순으로 진행됐다.

박태규 목사는 ‘인간의 3대 통로 (고전 1:18-25)’라는 제목의 설교를 통해 “헛된 속임과 일사각오의 신앙을 가졌던 주기철 목사님의 신앙을 본받아야 한다”며 “우리가 걸어간 그 발걸음을 누군가 따라 올 텐데 하나님 앞에, 교회와 사람들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올 한해와 남은 목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신년덕담을 전했다.

이규섭 목사는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에 동참하는 것을 뜻대로 삼고 고난 없이 부활이 없으니 그것을 알고자 그 고난에 참여한다고 표현했다”며 “지금 목회현장은 힘이 들고 어려운 상황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시대를 맡겼다. 고난을 견뎌내고 부활이라는 꽃대를 똑바로 바라보고 나아가면 고난도 감당할 수 있으니 승리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점심식사 후에는 탁구 대회를 열고 친목을 도모했다. (홍현숙 기자)

그리스도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성령의 생각으로 변화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합심기도는 △신년감사예배 및 하례만찬을 위해 이승진 목사(기도분과위원장), △세계 할렐루야 세계할렐루야대회를 위해 정숙자 목사(예배강대상 분과위원장)가 인도했다.

신년하례식 준비위원장인 유승례 목사는 “1월 1일부터 10-10 (매일 밤 10시에 10분동안)기도회를 시작했고 각각 받은 은사를 동원하여 준비하고 있다. 티켓은 테이블 한명당 50불 모아 팬더믹동안 힘든 미자립 목사님들을 돕는데 사용된다”고 전했다. 모든 순서는 조동현 장로(평신도 부회장)의 폐회기도로 마쳤다.

2024 신년감사예배 및 하례만찬은 손경호 목사(WPC 총회장)를 감사로 초청하여 1월 16일(화) 오후 5시 KCS(한인봉사센터)에서 열린다.

(홍현숙 기자)



뉴욕교협, 신년감사예배 및 하례만찬 3차 준비기도회 후 사진 촬영했다



부흥회 후 정기태 목사(좌)와 이용걸 목사(우)가 기념 촬영을 했다

퀸즈장로교회, 2024 신년특별새벽기도회

“지금도 기적이 일어난다”

퀸즈장로교회(담임 김성국 목사)는 2024년 새해를 맞이하여 “지금도 기적이 일어난다”라는 주제로 신년특별새벽기도회를 1월 2일(화)부터 6일(토)까지 매일 새벽 6시에 드렸다.

창립 50주년을 맞은 본교회는 2024년 표어를 “믿음으로 큰일을 하는 교회”로 정한 만큼, 그 새해의 시작을 “지금도 기적이 일어난다”를 주제로 한 말씀들을 선포하며 온 교회 성도들이 뜨겁게 기도함으로 한 해를 시작했다.

매일 새벽 경배와 찬양을 시작으로 대표기도와 교회를 이끌어가는 교육위원회, 선교위원회, 찬양위원회, 사역위원회, 교직원 가족들로 이루어진 찬

양대의 찬양 후 말씀이 선포됐다.

김성국 목사는 1월 2일 “순 들면 지금도 기적이 일어난다(출애굽기 17:8-13)”, 3일 “드리면 지금도 기적이 일어난다(마태복음 14:13-21)”, 4일 “외치면 지금도 기적이 일어난다(여호수아 6:20-21)”, 5일 “믿으면 지금도 기적이 일어난다(마가복음 5:25-34)”, 6일 “순 때면 지금도 기적이 일어난다(시편 46:4-11)”를 주제로 계속하여 전한 말씀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지금도 일하시며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들에게 반드시 기적이 일어날 것이라고 선포했다.

(김재상 기자)



‘사랑으로’ 축제 후원금 전달 후 사진촬영 했다

“복음의 뜻으로 살았던 ‘사랑으로’ 축제”

안창의 목사(전 퀸즈중앙장로교회 담임)는 12월 28일(목) 오전 10시30분 하크네시야 교회에서 은혜로 받은 사랑, 사랑으로 나누는 선물 ‘사랑으로’ 축제를 개최했다.

안창의 목사는 순천중학교 동문인 부영기업 이종근 회장으로 부터 1억원의 사랑의 선물을 받았다. 이 사랑의 선물을 목사님 자신을 위해 사용하기 보다 은혜로 받은 사랑의 선물을 선교단체와 언론단체 및 기관에게 나누는 아름다운 시간을 가졌다.

안창의 목사는 “이 귀한 성금을 『사랑으로』라는 명제로 축복된 시간을 가지며 즐거운 교제의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 이 시간 자리에 함께 해 주신 분께 감사하다”고 인사했다.

김종훈 목사의 사회로 시작한 1부예배는 기도 박상일 목사(뉴욕남교회), 설교 김종훈 목사(뉴욕예일장로교회), 축도 방지각 목사(뉴욕효신장로교회 원로목사) 순으로 진행됐다.

김정훈 목사는 ‘사랑의 씨 뿌리기(고후 9:10-15)’라는 제목을 통해 “그리스도의 복음은 우리를 섬겨주셨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삶을 얻었다. 예수 그리스도처럼 나를 희생해서 다른 사람을 섬기고 다른 사람

을 살릴 때 복음이 말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행함과 능력으로 나타나게 되었고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될 줄 믿는다. 오늘 이 자리는 복음의 뜻으로 살았던 곳이다”라고 설교했다.

이어진 2부 순서는 사회 김원재 목사(한울림교회), 기도 한재홍 목사(신광교회 원로), 축사 허연행 목사(프라미스 교회), 김광석 회장(뉴욕한인회)을 맡았고 이어 후원금을 전달했다.

허연행 목사는 “돈은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쓰는 것이 더 중요한데 돈 쓰임의 좋은 시범을 보여주었다. 이것이 하나의 이벤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도미노 효과로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기를 바란다. 또한 교회가 아직 살아 있음을 또 목회자가 아직 살아 있음을 세상은 아직도 살만한 세상임을 우리 모두에게 일깨워 준 안창의 목사님과 이종근 회장님과 또 모든 분에게 감사를 드리면서 진심으로 축하한다”고 축사했다.

후원금은 해외선교, 국내선교단체, 언론방송, 기관, 기타로 구분하여 43곳에 전달했다. 이날 노기성 목사(뉴욕세우루살렘교회)의 폐회 및 만찬기도로 모든 순서를 마쳤다.

(홍현숙 기자)

새벽별주님교회, 이용걸 목사 초청 신년부흥성회 “변화된 삶”

“아멘의 삶”, 아멘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

새벽별주님교회(담임 정기태 목사)는 2024 신년부흥성회가 “변화된 삶”이라는 주제로 1월 5일(금)부터 7일(주일)까지 이용걸 목사(필라델피아영생장로교회 원로목사, 디모데목회훈련원장)를 감사로 열렸다. 담임 정기태 목사는 부흥회 첫날인 5일 저녁 8시 부흥회를 시작하며, “새해를 말씀으로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받고 성령 충만함으로 결단하는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다. 이재원 집사(뉴욕장로교회 지휘자)의 특송 후 이용걸 목사는 “아멘의 삶(고린도후서 1:18-20)”을 주제로 말씀을 전했다.

이 목사는 “교회가 부흥하려면 항상 감사하라, 미안하다고 말하라, 사랑합니다 라고 말해야 한다”며 “아멘이라는 의미는 ‘진실로! 그렇게 되기를 원

한다’는 뜻으로, ‘아멘’이라고 말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 초대교회 시절에는 아멘 소리가 파도소리 같이 들렸다고 교부 제롬이 말했다. 이 시대에도 오병이어가 일어나려면 먼저 지식이 있어야 하고 둘째, 역사적 사건을 믿어야 하며 셋째, 지금도 일어난다는 확신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용걸 목사는 부흥회 기간 동안 총 5회, 5일(금) 저녁에 “아멘의 삶”(고린도후서 1:18-20), 토 새벽에는 “찬양의 삶”(시편 68:19), 6일(토) 오후 8시에 “성화의 삶”(에스겔 47:1-12), 7일(주일) 11시에는 “바른 삶”(창세기 47:1-12)과 오후 2시에는 “섬김의 삶”(히브리서 6:10)을 주제로 메시지를 전했다.

(정리: 김재상 기자)



특별새벽기도회 중 김성국 목사와 교육위원회가 함께 찬양하고 있다



뉴욕 그레이넷 교회, 디나눔하우스 후원금 전달 후 사진 촬영했다

뉴욕 그레이넷 교회, 디나눔하우스 후원금 전달

뉴욕 그레이넷 교회(담임 양민석 목사)는 한인노숙인 쉼터 비영리 전문기관 '디나눔하우스'를 초청하고 후원금을 전달했다.

박성원 목사(디나눔하우스)는 “한인 커뮤니티에서 베풀어 줄 수 있는 이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여 그들의 손을 잡고 일으켜 세워주는 일을 함께 하자”고 전한 후, 디나눔하우스 합창단이 은혜로운 찬양을 했

다. 양민석 목사는 디나눔하우스에 \$2,500의 후원금을 전달했다.

팬데믹 이후 렌트를 내지 못해 강제 퇴거당하는 한인들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 속에 디나눔하우스 쉼터에는 20여 명이 거주하고 있다. 디나눔하우스 입실 및 후원 문의는 718-683-8884, nanoomhouse9191@gmail.com 또는 문의하면 된다.

(기사제공: 디나눔하우스)

www.chpress.net

보다 신속하고 빠른 그리스도의 메신저가 되겠습니다.

The Korean Christian Press
미주크리스천신문



미주한인기독실업인회 남가주연합회 신년하례회를 마치고 참석자들이 단체사진을 찍고있다

미주한인기독실업인회 남가주연합회 신년하례회 “내 사업체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는 소망을 갖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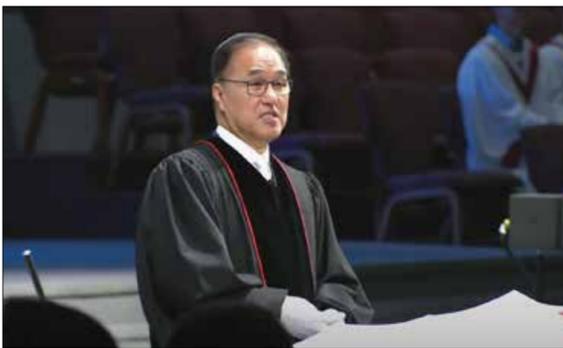
미주한인기독실업인회 남가주연합회(회장 이봉우) 주최 신년하례회가 5일(금) 오후 5시 아로마스포츠허브 연회실에서 개최됐다. 오현근 본회 K타운 지회장 사회로 열린 이날 신년하례회 1부예배는 이봉우 회장이 개회사, 최영봉 목사(남가주 교협회장) 기도, 송정명 목사가 “새 일을 행하라(사 43:18-19)”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다. 송정명 목사는 “지난 2023년은 힘든 한해였다. 교회는 물론이고 사업체도 많이 힘든 시간을 가졌을 것”이라며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뜻은 예레미야 29:11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며 이는 CBMC 회원들에게 주시는 소망의 말씀”이라 말했다. 송목사는 “우리를 미국에 보내신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있다”며 “우리들의 배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가슴에 새기

며 내 사업체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는 소망을 가지고 2024년을 시작하는 CBMC멤버들이 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수잔정 박사(남가주연세대 동문회장), 이재권 회장(미주 박정희 대통령 기념사업회), 최학량 회장(이승만 건국대통령 기념사업회), 박영선 전 부에나팍 시장이 축사했다. 이어 테너 김동근과 바이올리스트 김순필이 특송했으며 김영대 목사(연목회 이사장)가 축도했다. 이어 열린 2부 이춘근 박사 강연회는 ‘국제정세와 한반도 안보, 통일 전망’이라는 주제로 이춘근 박사가 강연했다. 이춘근 박사는 강연회를 통해 2024년 국제정세와 미중관계, 미국의 현상황, 그리고 한국정치와 남북문제에 대해 이야기했다. (박준호 기자)

남가주 각 한인교회 신년감사예배로 새해 첫 예배 드려

남가주 한인교회들이 7일(주일) 신년감사예배로 새해 첫 예배를 시작했다. 나성한인교회(신동철 목사)는 ‘예수님을 본받아 겸손과 은유로’라는 표어로 2024년 첫 예배를 드렸으며 사랑의빛선교교회(윤대혁 목사)는 ‘감사로 주를 영화롭게 하라’, 동부사랑의교회(우영화 목사)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요 4:24)’라는 표어로, 오렌지카운티제일장로교회(김종규 목사)가 ‘하나님의 꿈을 전하는 교회’라는 표어로 신년 감사예배를 드렸다. 나성영락교회(박은성 목사)와 베넬교회(김한우 목사), 생수의강선교교회(최형규 목사), 그리고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소서(창 12:3)’

라는 표어로 남가주사랑의교회(노창수 목사), 에브리데이교회(손창민 목사)와 은혜한인교회(한기홍 목사)는 성찬식을 거행했다. 기쁜우리교회(김경진 목사)는 2024년 재직 봉사자 명식을 가졌으며 선한정지교회(송병주 목사)는 2024년 재직임명식을, 오렌지카운티한인교회(남성수 목사)는 직분자 임명식을, 그리고 토렌스조은교회(김우준 목사)는 2024 신임초원장/초원비 & 목자/목녀 임명식을 가졌다. 이 외에도 거의 모든 교회들이 새로운 표어와 믿음의 결단의 시간을 갖고 힘차게 새해를 시작했다. (박준호 기자)



남가주 한인교회들이 신년감사예배로 새해 첫예배를 시작했다. 사진은 남가주사랑의교회에서 열린 신년예배에서 노창수 목사가 성찬식을 집례하는 모습



포틀랜드영락교회 직분자 은퇴식이 거행됐다

포틀랜드영락교회 직분자 은퇴식 거행돼 “노아처럼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자”

포틀랜드영락교회(담임 박상하 목사) 직분자 은퇴식이 지난 12월31일 예배시간에 거행됐다. 박상하 목사는 “오늘 7명의 하나님의 초대교회 7집사 같은

일꾼들이 은퇴했다. 섬기는 삶을 살아온 이분들의 인생에 많은 열매 맺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찬양팀의 찬양인도와 박상하 목사 사회로 시작된 예배는 김동규 장로가 기도했으며 호산나 찬양대가 찬양했다. 이날 박상하 목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창 6:5-10)’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다. 박상하 목사는 “노아의 시대는 하나님께서 지구적 심판을 할 정도로 부패한 시대였다”며 “그 원인은 쉬였기 때문이었다.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들이 사람들의 딸들 즉 하나님을 모르는 죄악된 세상과 쉬었다. 그래서 온 세상이 죄악으로 물들게 되는 일이 일어났다”고 설명했다. 박목사는 “죄의 유혹에 빠져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섞여서 죄악에 빠졌듯이 이 세상이 유혹의 측면에서 매우 유혹적으로 아름답다. 그래서 그 유혹에 빠질 때 거룩을 잃어버리고 죄 가운데 빠지게 된다”고 지적하며 “죄로 물들게 되는 일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하며 “방주중심으로 사는 것은 온 땅에 살아있는 것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선교자의 삶을 사는 것이다. 2024년 노아와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진정한 주님의 동행이 함께하는 자들 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열린 은퇴식은 이충원 장로, 이기욱, 한애경, 김진숙 권사, 한기룡, 고유민, 정재영 안수집사가 은퇴했다. 이날 예배는 박상하 목사가 은퇴한 자들을 위해 축복기도를 인도했으며 축도로 마쳤다. (박준호 기자 영상취재)



열매교회 신년 부흥집회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 김경진 목사

열매교회 신년 특새 및 부흥성회 열려 “영적감각을 가진 성도로 살아가자”

열매교회(담임 김요섭 목사) 신년특새 및 부흥성회가 김경진 목사(캐나다 빌라델비아교회 은퇴목사)를 강사로 초청한 가운데 ‘하나님 마음에 합한 성도가 되자’라는 주제로 6일(토)~7일(주일)까지 열렸다. 토요일 저녁 7시 찬양과 합심기도로 시작된 예배에서 김경진 목사는 “어찌하여 보고만 있느냐”(창 42:1-5)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다. 김 목사는 “팬데믹이라는 어려운 시기를 지나며 오늘날 성도들의 신앙생활은 어떤가?”라고 질문을 던지며 “나태해지고 교회를 살리고자 하는 마음이 사라진 시대로, 교회를 살리겠다는 몸부림도 열정도 없이 바라만 보는 시대를 살고 있다”고 피력했다. 그는 “이 시대를 주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 남다른 감각이 있어야 한다. 이 감각을 키우기 위해서는 성경을 많이 읽고 기도생활을 많이 해야 하며 생활 속에서 향기를 내고 삶속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야 한다. 우리는 그냥 성도가 아니라 영적 감각을 가진 성도로 열심을 다하며 살아가자”고 피력했다. 열매교회 신년 부흥회는 주일까지 이어져 새로운 한해를 시작하며 말씀과 기도로 거듭나기를 결심하는 성도들에게 깊은 은혜를 선사했다. (이성자 기자)



제7회 밴쿠버 목회자 및 선교사 청소년 자녀 캠프 참석자들이 단체사진을 찍고있다

제7회 밴쿠버 목회자 및 선교사 청소년 자녀 캠프 성료

제7회 밴쿠버 목회자 및 선교사 청소년 자녀 캠프가 ‘Give Me Jesus’ 주제로 2023년 12월 27일(수)부터 29일(금)까지 2박 3일 동안 칠리악에 위치한 Stillwood Camp & Conference(44005 Watt Rd, Lindell Beach, BC)에서 65명의 청소년들과 37명의 Volunteer Staff들이 참가한 가운데 성료됐다. 올해 PK Camp는 이번 2세로 청소년기를 밴쿠버에서 보낸 테디 리 목사(City On A Hill 교회)가 강사로 참여하여 귀한 말씀을 전했다. 두 번의 저녁집회에서 말씀을 전할 때, 청소년 참가자들의 마음의 문이 열려 눈물로 기도하며 성령충만을 경험할 수 있었다. 이번 캠프 주제인 “Give Me Jesus”처럼 홀로 높임 받으실 예수님을 소개하며,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달라는 기도와 고백이 울려 퍼지는 시

간이었다. PK Camp 지도목사인 신윤희 목사(하늘향한 교회)는 “이제 우리들끼리만 좋았던 Camp로 끝나지 않기 위해 PK Camp 스태프들은 다시 기도하기 시작했다. 저들이 뿌린 씨앗이 이번 캠프에 참여한 PK 청소년 마음 속에 온전히 심기어 자라나고 성장하여 열매 맺기를 소망한다”라며 “PK Camp를 통해 허락해주시 시간과 공간에 울려 퍼진 ‘Give Me Jesus’가 사그러지거나 꺼지지 않고, 이제 일상으로 내려온 그들의 삶속에서 살아 움직이시는 예수님과의 동행을 체험하기를 희망한다. 함께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고 말했다. (박준호 기자/캐나다 밴쿠버 크리스천신문 발췌)

서부교계 게시판

은혜한인교회 2024 신년축복성회

은혜한인교회(담임 한기홍 목사) 2024 신년축복성회가 ‘축복의 거대한 파도에 올라타라(고후 9:8)’라는 주제로 18일(목)부터 21일(주일)까지 개최된다. 이번 축복성회의 강사는 박순애 전도사이며 일정은 18-20일 저녁 7시30분, 21일(주일) 오전 11시20분, 오후 2시이다. ▲ 문의: (714)446-1000

미주 복음방송 재난, 난민을 위한 자선콘서트

미주 복음방송(사장 이영선 목사)은 ‘재난, 난민을 위한 자선 콘서트 ‘2024 나눔On 희망 On 콘서트’를 2월 9일(금)부터~11일(일)까지 남가주동신교회, 베넬교회, 주님의영광교회 3곳에서 개최한다. 이번 ‘나눔On콘서트’에는 찬양 작곡가 겸 예배인도자 손경민 목사와 The은혜 워십팀 (찬양사역자 이윤화, 찬양사역자 주리, 피아노 김정희, 색소폰 이기명)이 함께 한다. 후원티켓은 20달러에 구입할 수 있고 티켓은 미주복음방송 웹사이트에서 온라인 구매 및 전화문의 구매가 가능하며, 열에 이와 오렌지카운티 소재 9곳의 기독교 서점과 교회 서점 등에서 판매된다. ▲ 문의: (714)484-1190, www.kgbc.com

오렌지카운티교협 회장 이취임 감사예배

오렌지카운티 기독교교회협의회 제33대 회장 이취임식 감사예배가 오는 1월 14일(주일) 오후4시 30분 미러포인트교회(담임 박재만 목사)에서 열린다. ▲ 문의 (213)255-0296, (714)686-1441

미주한인의날 121주년 축하행사

미주한인의날(대회장 김일권 박사) 121주년 행사를 다음과 같이 개최한다. 먼저 미주한인의날 121주년 및 평양대부흥 117주년 감사예배가 13일(토) 오후 3시 남가주새누리교회(담임 박성근 목사)에서 열리며 설교는 이광평 전 총장이 하게 된다. 이어 미주한인의날 선포식 및 주요 지도자 조인식이 열리며 저녁에는 121주년 미주한인의날 셀레브레이션 디너를 갖는다. ▲ 문의: (678)538-7777



미주연세조찬기도회 참석자들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미주연세조찬기도회 은혜가운데 열려 “하나님과 가까이 함이 복과 은혜를 받는 방법”

미주연세조찬기도회(회장 정요한 목사)는 뉴서울호텔 주향에서 2024년 새해를 맞이하여 신년연세조찬기도회를 6일(토) 개최했다. 정요한 목사 사회로 진행된 조찬기도회는 서문준 이사장 대표기도, 부회장 최계희 권사 성경봉독(은4:11)과 김영길 감사한인교회 원로목사(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의 “하나님과 이웃에게 더 가까이” 설교가 있었다. 김 목사는 설교를 통해 “신년을 맞이하여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과 은혜를 받는 방법”이라면서 “요나 선지자를 통

해 주는 교훈을 본교는 물론 교계와 한인커뮤니티에 선한 봉사를 하자”고 했다. 이어 김영숙 연세대학교 남가주동문회장과 표정철 LA 부총영사의 축사가 있었다. 한편 이번 조찬기도회에 신년 새로운 출발을 위해서 (김영대 목사), 모교 연세대학교 발전을 위해 (지용덕 목사), 미주연세대학교 동문들을 위해(이태섭 회장), 우리자녀들과 차세대를 위해(박중대 목사), 한인커뮤니티 성장과 발전을 위해(김영일 목사)가 각각 기도를 했다. (기사제공: 미주연세조찬기도회)



CMF 선교원 신년모임 참석자들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CMF 선교원, 2024년도 신년 하례

2024년도 새해를 맞이하여 CMF 선교원 온 가족들이 모여 신년 하례 감사예배를 1월6일(토) 정오 CMF 선교원회관에서 열렸다. 김철민 장로(CMF 선교원 대표)의 사회로 김인철 목사(가나안장로교회) 기도와 특전사 후 임영민 목사(전 KAPC 총회장)의 설교로 진행됐다. 임 목사는 ‘주와 동행하는 사람(수 1: 8-9)’이란 제목으로 “세계 방방곡곡에서 선교하는 선교사님과 목회자와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넘쳐 나기를 기원한다.”며 “CMF

선교회가 창립 제25주년을 맞이하여 전 세계에 많은 선교사를 파견하고 지원하고 있다. 앞으로도 주님과 동행 하면서 힘찬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할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한다”고 말했다. 이어서 특송 순서로 인도 선교사인 최영란 선교사가 ‘은혜’를 불렀으며 강순영 목사(JAMA 원로 대표)가 격려사를, 정우성 목사(남가주광영교회)가 축사를 했다. 이날 감사예배는 임영민 목사의 축도로 모두 마쳤다. (정리: 박준호 기자)

mission 선교의 창 (229)



송종록 목사
(크로스선교전략 연구소)

유형교회에 위탁하신 지상과업

2024 갑진년(甲辰年) 새해가 밝았다. 5만여 세계 한인교회와 지구촌 곳곳에 흩어져 있는 1천만 한인 크리스천들에게 야훼(야훼) 하나님의 복이 임하기를 기원한다. 금년에 우리는 365일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 모든 답은 성경에 쓰여 있다. 주의 말씀은 우리의 삶과 사역의 절대적 기준이다. 성경은 일반적으로 복음의 내용과 행동강령으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우리는 늘 영생의 말씀에 취해 있으면서 생활 속에서 행함으로 신앙을 표출해야 한다. 이러한 시도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생명력 있는 삶이 된다. 오늘날 우리 크리스천들이 속하고 있는 유형교회는 오순절 성령강림 이후 탄생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교회를 향해 요구하시는 가장 엄한 행동강령은 무엇인가? 그것은 지상 명령이다. 이 지구촌의 80억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것 이상 더 중요한 일이 있을까?

1. 복음서에 나타난 선교명령

신약 성경은 운동 선교로 가득 차 있다. 예수님도, 제자들도 모두 선교의 사람들이었다. 하나님은 그의 독생자를 세상에 선교사로 파송하셨고 예수님은 그의 제자들을 선교사로 파송하셨다. 복음서에 나타난 선교적 명령은 어떠한가? 예수를 약속된 메시아로 표현한 마태복음에서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마28:19-20)고 했다. 예수를 섬기는 종으로 표현한 마가복음에서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막16:15)고 했다. 예수를 흠 없는 인자로 표현한 누가복음에서는 “그의 이름으로

죄 사람을 받게 하는 회개에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눅 24: 47-48)고 했다. 예수를 성육신하신 하나님의 아들로 표현한 요한복음에서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요 20: 21)고 했다. 4복음서 내에서 선교 명령을 시간적 순서에 따라 살펴보면 이렇다. 요한복음 20:19-23절에서 “위임된 권위”를 주제로 보여주고 있다. 누가복음24:44-49절에서 “회개와 죄 용서”가 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마가복음 16:15-20절에서 “선교의 신적능력”을 보여주고 있다. 마태복음 28:16-20절에서 “선교적 과제가 모든 족속(Panta ta ethne)으로 제자 삼는 것

도행전의 전체윤곽은 다음과 같다. 예수 승천과 오순절 성령강림(행1-2:13절)으로 말미암아 초대교회가 탄생하고 복음이 예루살렘(행 2:14-7장)에서 유대와 사마리아(행



성령은 선교의 영이다.
모든 크리스천들 심령 속에는 선교적 DNA 가 있다.
교회가 선교명령을 준행하지 않을 때 게토(ghetto)화 되기 쉽다.

(matheteusate)임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

2. 역사서에 드러난 선교행적

사도행전은 1:8절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스코로기(Graham Scroggie)는 그의 저서 “너의 성경을 알라(Know your Bible)”에서 1:8을 4가지로 설명하고 있다. 이 절에서 말한 기독교의 증거는 “*그리스도를 중심 주제로 한다. *교회를 유일한 매개체로 한다. *세상을 궁극적인 장(場)으로 한다. *성령의 능력 안에서 행해져야 한다.”라는 것이다. 사

경 27권 중 21권으로서 바울이 기록한 13편의 “바울서신”과 그 이외의 저자들이 기록한 8편의 “공동서신”이 있다. 그렇다면 서신서에 기록된 선교사상은 무엇인가? 우리는 여기서 그 전체를 아우르기 보다는 선교사로서 대표성이 있는 바울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는 선교 수단과 삶의 방식에 있어서 융통성과 적응성을 보여준다(고전 9:19-23). 무엇보다 바울은 말년에 영적 아들인 디모데에게 유언적으로 명하고 있다. “너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며 가르치라”(딤후 4:1-2)는 것이다.

인 위치에 있으며 단어하나에서 부터 모든 절과 장에 이르기까지 선교 행적으로 도배되어 있다. 그 의미는 무엇인가? 지금의 교회들이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바통을 이어 지상과업을 수행하라는 것이다.

3. 서신서에 내포된 선교사상

“하나님 앞과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딤후4:1-2a). 서신서(書信書, The Epistles)란 사도들이 여러 지역의 초대교회 공동체를 특정 개인에게 신앙의 도움을 주기 위해 써 보낸 편지들이다. 한마디로 선교편지라 할 수 있다. 서신서는 신약성

이는 마치 승천하시기 직전의 예수님을 연상케 한다. 이 보다 더 숙연한 선교 명령이 어디 있을까? 공동서신은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성취되는 우실 때까지 바통을 이어 지상과업을 수행하라는 것이다.

4. 예언서에 묘사된 선교완성

요한계시록은 다가올 예수님의 재림과 마지막 때 이야기를 담고 있다. 내용인즉, 사단은 하나님을 대적하며 그리스도인들을 시험하고 박해한다. 하지만 때가 되면 하나님은 사단과 공중권세 잡은 자들은 심판하고 종국에는 완성된 하나

키는 자”(계 1:3, 22:7)와 상통한다. “말씀을 지킨다”는 의미는 한마디로 거룩한 백성으로 성결하게 살아가되 적극적인 면에서 지상명령을 준행하는 자이다. 성령의 권능을 덧입고 주의 나라와 의를 위해 충성하면 반드시 이기게 되어 있다. 생명의 면류관(계 2:10)과 상급(계 22:12)도 주어진다. 하나님은 불꽃같은 눈초리로 당신의 종들과 함께 하고 계시기 때문이다(시 121). 그 주님은 장차 이루어질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 주실 것이며(계 21:4) 우리와 함께 영원한 복락을 누리게 될 것이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맺음 말

크리스천이란 어떤 사람인가? 성령의 인도함 속에서 그 말씀을 따라 사는 자이다. 복음서에서는 교회가 수행해야 할 지상명령을 언급하고 있다. 역사서인 사도행전은 한편의 서사시처럼 복음이 어떻게 원심적으로 확장되어 나갔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서신서는 어떠한가? 교리, 옥중, 목회, 공동 서신 등 다양한 장르로 구성되어 있으나 백미는 디모데후서에 행동강령이 선명하게 드러나 있다. 예언서인 계시록에서는 구원 계획의 성취가 장엄하게 펼쳐진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 믿음의 사람들

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성경이 총체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선교명령을 온 힘을 다해 수행하는 것이다. 헨드릭 크레머(Hendrik Kraemer)는 말했다. “선교가 없는 교회는 걸치레한 송장이다.” 교회는 존재 자체가 선교적이어야 한다. 이 과업은 선택받은 몇 사람이 아니라 십자가의 공로로 구속 받은 모든 사람에게 해당된다. 백나하면 우리 심령 속에는 누구나 선교적 DNA가 들어있기 때문이다.

Jrsong007@hanmail.net

One Story 21세기 말씀의 삶

홍요셉 선교사 (P.국, 중동선교전략가)

30강 라합, 요단, 기념돌 그리고 여리고 (2) (여호수아 1-9장)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요단에 들어서라

여호수아와 함께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갈렘을 제외하고는 모두 출애굽 당시 20세 미만이었거나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40살이 넘는 연장자들은 모두 홍해 바다를 어떻게 건넜는지 알고 있습니다. 홍해 앞에 이르러 모세가 지팡이를 내밀자 마른 땅이 되었고 그 마른 땅을 건넜습니다(출 14:16, 21, 22). 그런데 지금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명령은 ‘언약궤를 멘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수 3:8)는 것이었습니다.

절대로 쉽지 않은 순종입니다. 왜냐하면 ‘선경험’은 온전한 순종의 매우 큰 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순종하였고 하나님의 궤를 멘 제사장들의 발이 요단 물가에

잡기자 흘러내리던 물이 한 곳에 쌓이고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짐으로 백성은 이번에도 마른 땅을 건너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궤를 멘 제사장들은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 까지 그 마른 땅에서 있었습니까(수 3:15-17).

하나님의 궤가 물이 넘치는 요단에 먼저 들어가고 하나님의 궤가 백성이 다 요단을 건너기 까지 그 요단 가운데 있었다는 것은 바로 가나안 전쟁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보다 먼저 가셔서 장막칠 곳을 찾으시고 가나안 민족들을 멸하실 신실하심을 드러내신 것입니다(신 1:30, 33, 31:3). 또한 아브라함에게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창 17:1)고 하시고 같이 뒤에서 도와 함께하실 것입니다. 심장으로 기억해야 합니다. 가나안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기 위해서는 두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온전히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인

된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도움, 구원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의 방법대로, 뜻대로 건너게 하신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 곳에서 돌 12개를 가져오라고 하십니다(수 4:1-5). 그리고 이것을 표증으로 삼으라 하시는데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 물이 여호와와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 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수 4:6, 7)고 하라 하십니다. 하나님이,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 앞서 행하시고 끝까지 함께하

심에 대한 표징의 돌들을 기념으로 삼아 이제 시작인 가나안 정복에 하나님의 행하심을 기억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모든 백성에게 하나님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하나님의 백성이 그들의 하나님을 항상 경외하도록 하려 하십니다(수 4:24).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건넜습니다. 그러자 요단 서쪽 나라 왕들과 백성들의 마음이 녹았고 정신을 잃었습니다(수 5:1). 세상적인 기준과 지식으로는 지금은 공격의 ‘적기’입니다. 그냥 가서 공격하기만 하면 모든 승리가 보장이 되어 보입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은 ‘할례’를 명하십니다(수 5:2). 왜냐하면 광야에서 태어난 이스라엘 자손들은 할례를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수 5:5,7).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할례를 받지 못한 이스라

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합니다(수 5:3).

이제 할례를 행한 이스라엘 자손들은 각 처소에 머물며 낫기를 기다려야 합니다(수 5:8). 그런데 이것이 얼마나 전술적으로 어리석은 행동입니까? 지금 가나안을 차지하고 있는 강한 민족들은 마음이 녹고 정신을 잃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참 혈기를 병사들에게 거동도 잘 할 수 없는 할례를 시킵니다. 만일 이때 정신차린 적군이 공격을 하면 ‘백전백패’입니다. 우리는 이미 아굽의 두 아들, 시므온과 레위가 세겜 성남자들이 할례를 받았을 때 들어가 모두를 죽인 사건을 알고 있습니다(창 34:24, 25).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명령이 세상적으로는 참 어리석은 명령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의 순종에 하나님이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수 5:9)고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와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출 12:14)고 하신 유월절을 지킵니다(수 5:10, 11). 전쟁을 앞두고 적군을 앞둔 상황에서 이해되지 않지만 유월절을 만

드신 하나님은 유월절에 출애굽을 시키셨고 이 유월절에 맞추어 요단을 건너게 하신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백성에게 내리던 만나가 그칩니다. 광야를 벗어나 가나안의 소출을 먹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수 5:12). 그리고 여호수아가 만난 군대 장관은(수 5:14)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수 5:15)고 합니다. 여호수아는 그대로 합니다.

이 가나안은 하나님의 땅, 하나님의 나라요 이 가나안 정복은 하나님의 전쟁입니다. 하나님이 싸우실 전쟁입니다. 그래서 법궤를 앞세워 요단을 건너고 유월절 어린양의 절기를 지킴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앞서가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 집중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해야 합니다. 할례를 행하라 하시면 할례를 행하고 유월절을 지키기 때이면 유월절을 지키고 신을 벗으라 하시면 내 이성과 생각과 경험과 지식과 그리고 전통의 신을 벗어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hfamilyfa@gmail.com

매일가정예배

김상덕 목사 (복음장로교회 원로)
sangdkim@yahoo.com

월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어 주는 사랑을 하라 (마22:36-40) 찬 218장

일반적인 사랑은 감정에서 받쳐 주면 사랑하고 받쳐 주지 않으면 사랑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나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주시면서 나의 사랑을 나누어 주라고 하신다. 그러므로 나의 감정에서 사랑하는 것과 다르다. 주님께 순종하는 사랑이다. 즉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어 주는 것이다. 이 사랑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사랑이다. 그러므로 나의 감정에는 사랑하고 싶지 않지만 주인을 섬기는 마음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역지로 하는 것이 되기도 하지만 이것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사랑이다. 주님에게 순종으로 하는 사랑이다. 이러한 사랑을 하므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이다. 거룩한 사랑이다. 교회 안에서도 이러한 사랑을 하도록 훈련을 하여야 한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하심은 주인이 주시는 그 사랑을 나누는 것이다.

화 사람의 마음은 그릇과 같아서 (마 23:25-27) 찬 264장

겉모양은 깨끗하지만 속은 악한 생각이 가득하여 회칠한 무덤과 같은 사람이다. 마음에 있는 내용이 말을 통하여 행동으로 사망의 잔으로 나눈다. 사람을 볼 때 얼굴과 옷이 아니라 그 마음을 보아야 한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보신다. 무덤일지라도 겉은 깨끗하게 할 수 있으나 그 속에는 죽은 것으로 가득하다. 죄에서 나타나는 것은 죽은 생각들이다. 죽은 생각들을 나누며 즐기고 살지 말라.

마음을 씻은 것으로 채우지 말라. 죽은 생각으로 채우지 말라. 무덤이다. 빛이신 주님을 모시고 살아라. 그 빛이 어둠을 물리치고 빛이 충만하게 하실 것이다. 주님을 모셔야 마음이 정결하게 된다. 빛이 없으면 어둠뿐이다. 어둠에서 죽음이 충만하게 서식하고 사망의 생각들이 추하게 나타난다. 거룩한 말씀을 채우도록 노력하라. 성전에서 영광이 나타날 것이다.

수 나의 몸이 무너지면 나는 세상을 떠나야 한다 (마 24:1-3) 찬 289장

성전이 무너지는 때가 되면 어떠한 징조가 나타나는가 하는 질문이다. 나의 몸이 무너지는 때가 되면 어떠한 징조가 나타나는가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하다. 언젠가 나의 소중한 몸이 무너지는 것이다. 일평생 돌본 몸이 무너지는 것이다. 무너지는 징조가 어떻게 나타나는가? 나의 주변의 사람의 몸이 무너지는 것을 자주 보게 될 것이다. 나의 몸이 약해지고 약해져 질 것이다. 이것이 징조들이다. 몸이 무너지면 나는 떠난다. 떠나서 영원히 살 곳으로 옮겨진다. 베드로는

몸이 무너지는 날이 임박한 것을 알고 이제 내가 떠난다고 말한다. 죽는 것이 아니라 떠나는 것이다. 사도 바울은 몸이 무너지는 날이 가까이 온 것을 알고 자신이 장차 주님 앞에서 큰 면류관을 받을 것을 바라본다. 준비하라. 몸이 언제 무너지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깨어 준비하여야 한다. 잠막에서 지낼 날을 마치면 영원히 거할 천국에 가서 살 것이다. 하나님이 크게 기뻐하시고 칭찬하실 삶의 내용을 착실하게 쌓아야 한다.

목 세상의 종말은 언제가 될까 (마24:30-42) 찬 175장

예수님이 언제 이 땅에 재림하실까 하는 질문을 할 수 있다. 그 사건은 분명히 일어날 것이다. 징조는 보여 주시지만 그 날은 누구도 알지 못한다. 알고자 하는 지식적 충족을 채우고자 하지 말라. 이 질문 보다 더욱 중요한 질문이 있다. 나는 이 세상에서 언제 마갑하고 떠날까 하는 것이다. 떠날 징조는 지금 나에게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알아야 한다. 분명히 징조가 나타난다. 나의 이웃이 갑자기 떠난다. 젊은 나이에 떠난다. 늙어서 떠난다. 언젠가는 모든 사람이 떠난다. 나는 어떠한 부류에 속할지 모르지만 나도 떠

난다. 몇 십년 안으로 떠난다. 이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그 날이 너무나 빨리 다가올 것이다. 세월의 속도가 쓴 화살과 같이 빠르기 때문이다. 우리에게 오늘도 있고 내일도 있고 영원도 있다. 자신을 위하여 준비하라. 나의 주인의 평가의 기준을 알고 열심히 준비하라. 그러나 세상 사람은 자신의 건강에 관한 관심은 가지지만 자신이 죽을 날에 대하여 생각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 우리는 죄가 준 이러한 사상에 빠지지 말고 다가오는 자신이 세상을 떠날 것을 바라보고 방주를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금 등은 가지고 있지만 기름이 없는 사람들 (마 25:1-13) 찬 323장

등은 불을 밝히기 위하여 있는 것이다. 기름이 있어야 불빛을 밝힐 수 있다. 본문의 어리석은 사람은 결국은 빛이 없으므로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하였다. 교회는 다니지만 기름이 없어 빛이 없으므로 천국 잔치에 즉 구원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되지 않아야 한다. 겉으로는 교회 직분이 있고 교회 다니기 때문에 천국에 갈 줄로 알고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당일

에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이 되지 않아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빛이 되시는 주님이 나에게 실제적으로 계시어야 된다. 나에게 주님이 계시지 않으면 천국 잔치에 들어가지 못한다. 빛을 밝히지 않으면 등은 아무 필요가 없다. 성도여 그 빛이 오늘도 있는가? 빛이 있는 사람으로 살고 그 빛을 밝히면서 살아야 한다.

토 주인이 맡긴 인생임을 알고 살아라 (마 25:14-30) 찬 94장

창조주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다. 주인이 나에게 이 땅에서 삶을 주신 것이다. 주인을 위하여 장사하라고 한 것이다. 주인의 뜻과 나의 사명을 알고 살아야 한다. 주인이 맡기실 때가 있고 주인이 불러 결산하실 때가 있다. 그런데 수 많은 사람은 나 자신의 주인을 무시하고 자신이 주인으로 알고 자기 좋아하는 대로 산다. 그러나 주인이 부르실 날은 피할 수 없다. 반드시 주인이 맡기신 뜻을 따라 얼마나 충실하게 살았는가 하는 삶을 결산을 받는다.

그리고 결과를 따라 영광을 혹은 무서운 형벌을 받는다. 이 내용은 주인의 말씀이다. 자신이 주인이라고 하는 사상으로 사는 사람에게는 이러한 내용엔 관심이 없고 농담으로 취급한다. 자신의 뜻이 아닌 세상을 떠나는 날이 있다고 하는 것이 주인이 있다고 하는 증거다. 멸망하게 하는 사망의 지식을 믿지 말라. 영원한 불행으로 이끄는 마귀가 보낸 사자다. 주인을 알고 주인의 것임을 알고 주님 앞에서 결산할 날이 있음을 알고 준비하며 살아라.

교회음악 이야기(50)



윤임상 교수
(웰스미션대학교대학원)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찬송일세”

2023년 다사다난했던 한 해를 마감하고 2024 신년을 맞이하며 올해에도 우리가 끊임없이 고백 해야 할 찬송이 있습니다. 그것은 페니 크로스비(Fanny Crosby 1820-1915) 여사가 쓴 찬송 중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에 나오는 “Bless the assurance, Jesus is mine. This is my story, this is my song. 축복의 확신, 예수님은 나의 최고봉입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고 나의 찬송입니다.”라는 고백입니다.

이 고백을 붙들고 시편 145편에 나오는 삼위 하나님을 송축하며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는 복음을 향한 내면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시편 145편 저자가 기록한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시 145:1-2) 찬송을 보면 삼위 하나님을 찬양하는 “송축”의 단어가 세 번씩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 삼위 하나님을 축복하는 송축의 단어가 담긴 히브리 단어는 바리크 (ברך)입니다. 이 단어의 기본적인 뜻은 “무릎을 꿇는다(kneel down)”입니다. 무릎을 꿇는 행위는 절대적 항복이고 순종입니다.

이 글을 쓰고 있는 가운데 필자의 책상위에 있는 렘브란트(Rembrandt Harmenszoon van Rijn, 1606-1669)의 그림 ‘탕자의 귀환’을 바라보고 있노라면 유난히 ‘바리크’의 의미를 더 깊이 새기게 됩니다. 그것은 무릎을 꿇고 머리를 아버지의 품 안에 바짝 조아린 채, 세상에서 가장 겸손한 모습을 비추는 둘째 아들의 자세가 강하게 필자의 시선을 고정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자세로 아버지에게 자신의 전부를 드리는 모습, 이것이 진정한 ‘송축’의 단어를 충족하게 하는 것이라 믿게 됩니다.

이러한 모습으로 삼위 하나님을 송축하는 일이 당연한 것은 우리는 분명 복음의 진리를 마음에 깊이 각인하고, 그것에 진정한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의학과 상담학 그리고 심리학을 통합시킨 위대한 영성 심리학자 폴 투루니에(Paul Trummer, 1898-1986)는 “십자가가 최고의 실패인 동시에 최고의 승리인 것은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 목적을 성취했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이다”라고 고백합니다. 이처럼 하나님 최고 사랑의 결정체인 십자가가 가장 치욕의 모습으로 비추어 지지만 그것이 결국 최고의 영광이란 사실을 우리가 알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오늘을 사는 우리가 크로스비 여사가 고백한 “Bless the assurance, Jesus is mine. This is my story, this is my song”을 가지고 삼위 하나님을 송축하며 바른 복음을 되새키지 않게 하기 위해 계속해서 바꾸고 저항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먼저, 우리의 생각과 말 속에 하나님을 감히 피고석에 앉혀놓는 무의식적, 의식적 행위들을 바꾸어야 합니다. C.S. 루이스(Clive Staples Lewis, 1898-1963)가 쓴 ‘피고석의 하나님’에서 “고대인의 피고인이 재판장에 가듯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하지만 현대인의 경우에는 그 역할이 바뀌었습니다. 인간이 재판장

이고 하나님이 피고석에 계십니다. 인간은 상당히 이해심이 많은 재판장입니다. 하나님이 전쟁, 가난, 질병을 허용하신 일에 대해 조리에 맞는 항변을 내놓으시면 귀 기울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재판은 하나님의 무죄 방면으로 끝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인간이 판사석에 앉았었고 하나님은 피고석에 계신다는 사실입니다.”라고 이야기 합니다.

100년이나 가까이 전에 썼던 이 글이 오늘의 기독교 사회의 모순을 적나라하게 파헤쳐서 대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많은 부분에 있어 하나님을 피고석에 앉혀 놓고는 변론하는 하나님을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자신은 아주 인자한 재판관의 모습을 비추고 있려고 합니다. 하나의 예로 오늘날 예배는 이런 잘못을 범하기 쉽게 급격하게 변질되어 가고 있습니다. 회중들은 목청껏 소리 높여 하나님을 찬송하며, 말씀에 반응하여 결단하려 하기보다 하나님이 하셔야 할 재판장 자리에 앉아 무대 위의 인도자들을 쉽게 판단하고 비평하며 한 시간의 예배 시간을 보내는데 더 익숙해집니다. 무대 위에 인도자들은 하나님이 맡으셔야 할 영광과 칭송의 자리를 자신들이 차지하기에 급급한 나머지 회중들의 취향에 맞추어 달콤한 미사여구를 찾기에 더 관심이 집중되고 예술적 아름다움에만 더 집착하려 합니다.

회중들, 그리고 무대 위의 모든 인도자들은 기능인 이기 이전에 동등한 자격을 갖춘 예배자들입니다. 유일한 재판장 되시는 하나님만을 칭송하고 높이고 송축하는 일만 하도록 바뀌어야 합니다.

우리는 복음을 저해하려는 세상을 향해 강하게 저항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혁명을 일으켜야 하겠습니다. 체스터턴(Gilbert Keith Chesterton, 1874-1936)이 쓴 책 ‘정통’에 보면 “당신이 하얀 기둥을 내버려두면 그것은 곧 까만 기둥이 될 것이다. 만약 그 기둥이 하얀색을 유지하려면 페인트칠을 다시 하지 않으면 안 된다. 말하자면 당신은 언제나 혁명을 일으켜야 한다.”고 이야기 합니다. 우리는 복음의 기둥이 겉게 변질되지 않게 지속적으로 하얗게 칠을 하며 저항해야 하겠습니다.

위와 같이 삼위 하나님을 송축하며 우리가 계속해서 바꾸고, 저항해 나감에 있어 때로는 나의 그릇이 비록 한 달란트, 혹은 그 이하처럼 나약하다고 느껴질 때 칼빈(John Calvin, 1509-1564) 선생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라면 아무리 저급하거나 초라한 일이라도 하나님 앞에서 빛나지 않거나 귀중한 것은 없다.” 나의 있는 이 자리에서 바리크(ברך) 송축의 찬양, 최고의 헌신을 다해 드리는 혁명의 찬양 “Bless the assurance Jesus is mine. This is my story, this is my song. 축복의 확신, 예수님은 나의 최고봉입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고, 나의 찬송입니다.”를 드리며 복음의 본질을 벗어나지 않게 바꾸고 저항해야 합니다.

iyoon@wmu.edu



“사람은 가도 사랑은 남습니다”

가슴으로 쓴 이야기는 세월이 가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열심히 한 생애를 살아온 당신이 남긴 사랑의 이야기들

기억은 추억이 되어 더욱 소중한입니다

최고의 예를 드리는 하늘 가족, 중앙 장의사

머리카락 한올까지 마지막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 정성속에 함께 보낸 31년 Since 1988, 최초의 한인 공인장례사

당신의 이야기 ... 사랑의 꽃이 됩니다

모든지점 - 대형 파랑장 준비

Central Funeral Home: BongHo Ha FD, NJ LIC 4569 | Gina Chong F.D. NJ LIC. 4504 | John Chong F.D. NJ LIC 5079
NY: 샌프란시스코 162-14 Sanford Ave., Flushing, NY NJ: 리지필드 809 Broad Ave., Ridgefield, NJ NJ: 잉글우드 129 Engle St., Englewood, NJ

장례사전계획 | 장례식 코디네이터 | 성직자 초빙 | 묘지구입 상담 | 운구 한국소환 | 이장 | 기타 장례의 모든 것

뉴욕 | 718. 353.2424 뉴저지 | 201.945. 2009

“성경적 회복 Biblical Recovery” 목회적 접근

문제 제기

코로나 팬데믹 기간중에 미주 한인교회는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재미 한인기독교재단의 통계에 의하면, 2019년에서 2021년까지 미주 한인교회 수가 약 20% 감소했습니다. 그러나, 미주 한인교회 수의 감소는 코로나와 상관없이 오래전부터 예견된 일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한국에서 오는 이민자 수가 급격히 줄었습니다. 한때 많게는 매년 3만명 이상 미국에 들어온 한인 이민자 수가 지금은 고작 수백 명 들어오는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고령화되면서 세상을 떠나는 1세 교인들이 늘어나고, 이민 2세대들은 고등학교 졸업과 함께 거의 한인교회를 떠나다 보니, 자연스럽게 미주 한인교회 수는 줄어가고 교세는 약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팬데믹을 만나면서, 이런 현상이 가속화되었습니다. 성도가 얼마 없어 온라인 예배를 드리기가 어려운 교회들을 중심으로 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게 된 것입니다.

코로나 팬데믹이 어느 정도 수그러들고 난 후에 보니, 마치 쓰나미가 휩쓸고 지나간 것처럼 많은 교회들이 소리 소문 없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기간에 온라인 예배에 익숙해진 교인들은 대면 예배에 빠지는 경우도 많아졌습니다. 또한 코로나가 완전히 사라진 것이 아니라, 많이 약해진 것이기에, 여러 사람들이 모이는 각종 교회 활동의 참여도가 코로나 이전만큼 잘 회복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어떻게 우리는 약해져 가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강건하게 회복시킬 수 있을까요? 늘 그렇듯이 모든 인생의 질문에 대한 답은 성경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한 때, 수 천명에 이르는 교인을 거느린 대형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스테반의 박해 이후로 그 교세가 현격하게 줄어들어, 사도행전 8장에 보니 사도외에는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졌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천지 사방으로 흩어져 완전히 허약해진 예루살렘 교회는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온 세상에 더욱

강건한 주님의 교회들을 세워가는 쫓겨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 중에 한 교회가 위대한 선교사 바울을 탄생시킨 안디옥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교회와는 사뭇 다른 방식으로 운영이 됩니다.

우리는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한 쪽 문을 닫으시면, 다른 쪽 문을 여시고, '새 포도주는 새 부대'(막 2:22)에 답듯이 완전히 새로운 방식으로 하나님의 교



윤명호 목사
뉴테스트성서교회

회를 회복시키고 사용하신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교회를 흩어 약하게 하시고, 새롭게 세운 안디옥 교회의 특징은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삼으라'는 주님의 대위임명령에 순종한 '선교'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통해 하나님 하시는 일을 이해할 때,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미주 한인교회에 주시는 성경적 메시지는 새로운 방식의 '선교'라고 볼 수 있습니다. 크게 세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1세와 2세의 유대 강화입니다.

작년 9월 연방 센서국이 발표한 미국내 전체 한인 인구는 2022년 기준으로 약 2백만 명 정도 되는데, 그 중에 26.8%에 달하는 사람들이 혼혈 한인입니다. 미주한인 4명

중 적어도 1명은 혼혈입니다.

그리고 미주 한인중 한국 출생 한인인 전체의 52%밖에 되지 않고 점점 고령화 되어가고 있습니다. 미국 출생 한인인 이제 40%를 훌쩍 넘었고 점점 그 수가 크게 늘어가고 있습니다. 한인 이민이 지금까지 1년에 수백명 수준으로 이루어진 다면 앞으로 곧 미국 출생 한인들의 수가 한국 출생 한인들 수를 앞지르게 됩니다.

이미 오래 전부터 진행되어

시, 이루어야 할 목회 방향입니다.

사실, 한국에서 들어오는 이민자의 수가 많았을 때에는 1세와 2세 교회가 모두 부흥하는 경우에 비좁은 교회당 안에 함께 있을 수 없어 교회가 한 어권 교회와 영어권 교회로 분리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자녀들도 고등학교 때까지는 부모님과 함께 교회를 다니다가, 고등학교를 졸업하면서는 영어권 교회로 가는 것을 자연스

로 받아들여 리더십을 이루면서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이루게 됩니다.

그러므로 앞으로의 미주 한인교회의 미래는 거시적으로 보았을 때 진정한 교회 회복과 부흥을 이루기 원한다면, 여호수아와 함께 한 새로운 세대가 한인교회의 주인이 되고 한어권 1세대들이 함께 하며 지원하는 교회들로 세워져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온라인으로 할 수 있는 교회 사역들이 의외로 많다는 것을 자연스럽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목회자는 온라인으로 성도들을 심방하고 기도해 줄 수 있고, 또한 온라인을 통해 성경공부하고, 소그룹 모임을 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 사람들은 서로 오프라인에서 만나기 위해 중간에 많은 시간을 쓰면서 어느 특정 장소에 가서 소그룹 모임을 했다. 이제는 왔다 갔다 하는 아까운 시간 낭비없이 각자 컴퓨터 혹은 휴대폰 앞에 앉아서 너무나 쉽게 온라인으로 여러 교회 모임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각종 질병이나 감기등의 이유로 오프라인 예배가 어려운 분들이 온라인으로 예배를 빠지지 않고 드릴 수 있는 것도 큰 장점이었습니다.

게다가 온라인 사역은 개교회를 넘어서 인터넷상에 있는 지역사회와 온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교회 활동을 소개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직접 교회에 나와 예배에 참석하기 전에 몇 주 동안 온라인 예배 실황을 접속하는 가나안 신자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불신자들도 아무런 부담 없이 온라인 예배에 참석하기도 합니다. 인터넷이 길이 되어, 이 세상 어디에 사는 누구든 상관없이 온라인 예배를 통해 복음을 들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온라인은 코로나 팬데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영적 신대륙과 같습니다. 그러나 온라인으로 많은 교회 사역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온라인으로만 예배드리고, 신앙생활하는 데는 분명 한계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온라인에서 예배를 드리다 보면, 오프라인에서 예배드릴 때와는 조금 마음 자체가 흐트러질 수 있고, 중간에 이런저런 일로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는 유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인터넷상에서는 서로 대면하여 함께 먹고 마시며 나눌 수 있는 성도간 사랑의 교제가 아쉬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함께 땀 흘리며 섬기는 봉사과 구제 활동 및 선교를 하는 일이 크게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16면으로 계속)

‘새로운 부르심’ (막 2:22)

은 일이지만, 지금 미국내 한인교회들이 2세대에게 리더십을 물려주지 않으면, 미주내 한인이민교회들은 결국 모두 소멸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한인 이민 역사에서 한동안 한인교회가 영어권 2세 교회를 품고 있는 형태였다면, 이제는 영어권 2세 교회가 주도적으로 한어권 교회를 품고 가야 할 위치에 놓여 있습니다.

한인교회의 후임 목회자가 미국 출생의 다음 세대를 지도하고 인도할 영어권 담임 목회자가 되고 한어권 성도들을 위한 한어권 부교역자와 동역하는 목회 형태가 필요합니다. 성경적인 비유로 말하자면, 광야에서 태어난 새로운 세대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한 여호수아 같은 리더에게 교회 리더십을 물려줄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런 일이 말처럼 쉽지는 않지만, 미국내 한인 교회의 존립을 위해서는 여러가지 크고 작은 시행착오를 겪더라도 반드시

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한어권 교회에 눈에 띄게 노쇠화 되어가고, 젊은이들이 사라져가는 모습을 보면서, 교회가 그대로 소멸하기 전에, 영어권 2세대들이 함께 머물며 자연스럽게 교회 주인으로 자리잡아 주인의식을 갖고 교회를 운영해야 할 필요를 느끼게 됩니다. 게다가 지금은 미주 한인들 네 명 중 한 명이 혼혈입니다. 그러므로 영어권 2세가 모든 한인교회의 주인이 되어야 하는 것은, 시대적 요청이요, 교회의 흥망을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최초의 선교사요 신약 성경의 거의 절반을 쓰면서 많은 교회를 세운 사도바울도 길리기아 다소에서 태어난 유대인 2세입니다.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이 흩어지면서 세워진 안디옥 교회는 유대인이 아닌 구브로 출신의 바나바가 담임목회자가 되고 그가 역시 소아시아에서 태어난 유대인 2세인

둘째로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이용입니다.

코로나 팬데믹을 통해서 지상의 모든 교회는 놀라운 영적 신대륙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코로나 이전까지 대부분의 교회들은 교회당이라는 어떤 물리적인 장소에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신앙 활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팬데믹은 교회당 문을 강제로 닫게 하고, 모든 교회들을 인터넷 공간으로 몰아갔습니다.

그곳에서 모든 교회는 인터넷상에서 예배드리는 온라인 예배에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코로나가 아니었다면, 대부분의 교회들이 생각조차 하지 않았을 예배 방식입니다.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온라인상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사람들은 온라인상에서도 얼마든지 예배를 드릴 수 있고, 번모로 헌금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Candidacy Qualification

Individuals who have obtained or is expected to graduate by June 29, 2024 (including the 30th) with a Master of Divinity (M.Div) degree from seminaries managed by Korean American Presbyterian Church or affiliated with the General Assembly, and are committed to Reformed Theology with a blameless life in faith, clear calling and spiritual leadership.

Exam Subjects

- Exegesis on Reformed Theology Perspective
- a) Written Test :
 - (1) Church History (2) Systematic Theology
 - (3) American Church History (4) Constitution of KAPC
- b) Written Assignment :
 - (1) OT Exegesis Paper (2) NT Exegesis Paper
 - (3) Thesis Paper (4) Sermon Manuscript
- (1) OT Exegesis Text : Leviticus 1:1-9
- (2) NT Exegesis Text : Galatians 2:11-21
- (3) Thesis Topic : "Revitalization Plans & Strategies for Sunday School (Next Generation) after Pandemic"
- (4) Sermon Text : (Choose One) O.T. Judges 2:1-10 "There Arose Another Generation after Them", N.T. Colossians 1:24 "Lacking in the Sufferings of Christ"
- (5) Instructions for the written assignments :
 - * Plagiarism will not be tolerated.
 - You must submit one hard copy and email a PDF file of each written assignment according to the following regulations:
 - Use 8-1/2" by 11" letter size papers.
 - Use 12-point font (Times New Roman), 1-inch margins, double-spaced, use page numbering, proper footnoting, and include bibliography.
 - Both thesis and exegesis papers should be about 25 pages each in length excluding title page and bibliography. The length of the sermon text should correspond to 30 minutes of actual preaching time.
 - Use a common academic writing format, and all quotes, and cited information must accompany proper references (i. e. footnotes or endnotes).
 - All PDF files must be emailed to euhan@hotmail.com with the following instructions:
 - The subject line must include your name
 - File attachments must include your name and assignment title. (Ex. JosephKim-OTExegesisPaper.pdf)
 - c) Oral Interview



The following information is regarding the "Pastoral Ordination Candidacy Qualification and Exams," which will be offered in May of 2024

Pastoral Ordination Candidacy Qualification and Exams

Instructions for Documents and Written Assignments Submission

- a) All required documents and written assignments must be submitted by March 30, 2024 (Mailed documents must be post-marked by March 30, 2024. No late submissions will be accepted).
- b) Submitted documents and assignments will not be returned to Candidates.
- c) The results of the exam will be announced during the 48th meeting of the General Assembly (May 21-24, 2024). The candidates who successfully passed the examination process will be announced on the floor and will be given Ordination Candidate Qualification Certificates.

Exam Date and Place

- a) Dates : May 20(Mon)~21(Tue), 2024
- b) Place : Embassy Suites by Hilton San Francisco Airport Waterfront
150 Anza Blvd, Burlingame, CA 94010

Accompanying Documents

- a) A copy of the certificate of graduation of Bachelor & M. Div. degree or a letter from the registrar (or the president of a seminary) certifying that the candidate is expected to graduate by June 29, 2024.
- b) An official copy of transcript for the whole M. Div. program.
- c) A letter of recommendation from the moderator of the presbytery under which the candidate is under care.
- d) An official letter from a Presbytery (issued by the clerk) confirming that the candidate under care is in good standing.
- e) Curriculum Vita (CV) including a clear history of faith (For example, the year of baptism, the name of the church where the baptism was given and the name of the officiating minister, etc.)
- f) Two passport-size photos of the candidate.
- g) Fee: \$100 (USD). Notice after receipt

Miscellaneous Information

- a) Candidates must reserve rooms for the dates of exam (5/20,21) through Rev. Joseph Kim
- b) Candidates may use laptops for written exams, but the following conditions must be met:
 - (1) The Laptop must contain only a Word Processing program.
 - (2) The screen is not to be changed during the exam. Violators will not be tolerated and will result in dismissal from the examination room.
 - (3) One must bring his own printer. Any mechanical problems will not constitute a valid excuse for failing to submit the exam on time.

Submit To

Rev. Joseph Y. Kim
Address : 2908 S Harvard Blvd, Los Angeles, CA 90018
Cell : 213-215-8523 E-mail : laredeemer@gmail.com

Contact Persons for Information

- a) Chair of the Exam Committee Rev. David H. Park (917) 254-0887 heepark91@gmail.com
- b) Clerk of the Exam Committee Rev. Joseph Y. Kim 213-215-8523 laredeemer@gmail.com

Korean American Presbyterian Church

총 회 장 : 김성국 목사
서 기 : 유진상 목사
고시부부장 : 박희근 목사
고시부서기 : 김요섭 목사

“성경적 회복 Biblical Recovery” 목회적 접근

(15면에서 계속)

그래서 온라인 예배 초기에는 TV 혹은 휴대폰 앞에서 드리는 온라인 예배에 많은 이들이 우려를 표하며, 몇몇 목회자들은 비대면 예배가 종교 탄압이라고 강력하게 반발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지난 3년간 코로나를 지나며, 많은 교회들이 온라인 예배와 온라인 교회 사역들을 시행하면서, 온라인을 이용한 교회 사역들의 장점들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도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19절 이하에서, 자기는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으로” 복음을 전했다고 고백했습니다. 사도바울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기 위하여 유대인에게는 그들의 문화에 맞추어 유대인처럼 행동하고, 율법 없는 자에게는 율법 없는 자 같이 행동하였고, 약한 자들에게는 약한 자가 되어 복음을 위해 모든 것을 행하였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의 주된 사명이 예수 복

음을 전하여,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는 것’이기에,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어느 한쪽이 아니라, 영혼 구원하는 데 도움이 된다면 마땅히 모두 다 해야 할 일입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 어느 한쪽을 선택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둘을 다 사용할 수 있다면, 서로 상호 보완하여 연합한 교회를 든든하게 세우고, 건강하게 회복시켜 복음의 증인으로 쓰임받게 할 것입니다.

세번째로 선교적 교회로의 전환입니다.

한인 이민자들의 수가 크게 줄면서, 이제 교회로 찾아오는 분들은 복음을 듣고, 예수를 영접하게 된 불신자라기보다는 거의 다른 교회에서 수평 이동한 성도들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한인 교인 숫자는 해마다 고령화되고 눈에 띄이게 그 숫자가 줄어가고 있습니다. 교인들의 지인들 중에는 거의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져서, 전도할 대

상이 별로 많지 않습니다. 그 몇 명 되지 않은 전도 대상자를 놓고 많은 교회들이 경쟁하는 구도입니다.

그러나, 조금만 눈을 돌려서, 우리 주변에 사는 외국인들을 돌아보면,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아직 예수를 모르고 산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처음에 유대인 전도를 시작했다가, 이방인 선교로 돌아선 유대인 바울처럼, 미주 한인교회도 복음 전도의 대상을 한인 중심에서 외국인 중심으로 바꿀 때가 되었습니다.

미국은 다인종, 다민족 국가라 어디에서든 이민자들을 볼 수 있고, 만날 수 있습니다. 특히 한인 이민교회들이 모여 있는 주요 도시에는 해외 출생 외국인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들 중에 특히 이슬람권이나 불교권에서 온 이민자들은 대부분 예수를 잘 모릅니다. 그들에게 예수 사랑을 전할 수 있습니다.

연합한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고 회복시키는 데에는 예수 복음을 전하는 것보다 효과적인 사역은 없습니다. 복음



을 전하면, 교회는 일어서게 되어 있습니다. 일터에서 만나는 손님이나, 혹은 직장에서 만나는 외국인 동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고, 이런저런 인연으로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예수 사랑을 품고, 여러가지 사역으로 선한 일을 행하며 복음을 전하게 되면, 코로나로 인해 무너지고 침체된 교회와 교인들이 일어서게 되어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을 지나면서,

이제 미주 한인교회가 진정한 회복과 부흥을 경험하려면 세가지 방향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첫째는 1세와 2세의 유대관계를 돈독히 하고, 2세대들이 주인이 되는 교회를 이루어야 합니다. 둘째는 오프라인 예배와 교회 사역과 함께 온라인을 적극 활용하여 주변 이웃들 뿐만이 아니라 인터넷 세상에 있는 많은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여야 합니다. 셋째는 디아스포라 한인들을 넘어서 이제 외국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선교적 교회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한마디로 교회 존재의 목적인, ‘영혼 구원의 사명’을 모든 세대와 함께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전방위적으로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코로나 팬데믹을 통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새로운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이전과 다르게 더욱 건강하게 부흥하는 미주 한인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davidmyoon@hotmail.com

미주 한인교회는 무척 약해졌습니다. 그러나 코로나 팬데믹을 통해서 미주 한인교회의 실상이 좀 더 명확하게 드러난 것뿐이지, 미주 한인교회들이 약해진 이유는 꼭 코로나 팬데믹 때문만은 아닙니다. 오히려 코로나 팬데믹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 자신을 더욱 깊이 들여다보게 하여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하듯, ‘새로운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닫게 하는 계기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베드로 진서 14

팬데믹 팬데믹

살기 어려운 시대임을 실감했다. 생전, 글씨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들어보지도 못했던 팬데믹이란 단어가 주어졌고 거의 3년의 세월로 우리를 구속시켰으니 말이다. 단어를 풀면 팬이란 모두란 말이고 데

믹은 사람이란 말의 합성어로 전 세계적으로 전염병이 퍼졌을 때 선언하는 용어가 된다 하겠다. 이제 끝났으니 엔데믹이라고 한다.

길었다 짧았다가 아니라 정부에서는 몇 개월 간 외출을

금지시켰고 어떠한 모임도 갖지 못하게 했으니 그 답답함이야 어찌했겠는가. 외출이나 산책도 못하고 집안에만 갇혀 있다는 그 자체가 공포였다. 주일 예배마저 금지를 당했으니, 정부의 지시가 아니어도 코로나에 걸려 죽을 수도 있겠기에 두려워서 꼼짝을 못했다. 엄청난 숫자의 세계인들이 죽음을 맞았다. 그러나 겁이

났던 성도들은 그렇잖아도 교회 오기가 싫었는데 좋은 핑계거리가 되었지만.

지나간 이야기지만 집에만 갇혀 꼼짝도 못했으니 그 답답함은 말로 다 할 수 없었다. 혹자는 감방생활이라 했고 어떤 분은 기도원 생활을 했다고 하셨다. 다시 그런 시간이 나타나지 않기를 바라면서 나는 나에게 주어진 모든

시간들을 어떻게 지냈던가? 무얼하면서 지냈던가? 그리고 앞으로 남은 시간과 생애를 답답한 감방생활이로다 하고 치부하며 견뎌나갈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과의 목상 그리고 동행하는 기도원 생활로 기쁨과 감사로 나갈 것인가? 생각해본다. 아, 팬데믹이여 팬데믹이여!

revpeterk@hotmail.com



김경진 목사 (빌라델비아교회 은퇴목사)

이용규 목사

고려신학대학원 졸업 Faith Theological Seminary 종교교육학 박사



60여년 목회, 2014년 소천 (LA동부장로교회 개척, 43년 시무)

강해설교집 목록

- 제1권 주의길을 예비하라 제22권 승리의 신앙생활 제2권 아가서 강해 제23권 선한목자와양 제3권 너희 구원을 이루라 제24권 위대한 믿음의 유산 제4권 주의 재림을 준비하라 제25권 피할 수 없는 하나님 제5권 썩지 않는 면류관 제26권 빌립보서 강해 제6권 스가랴서 강해설교 제27권 영원히 남는 생활 제7권 위기를 이기는 길 제28권 시온으로 가는 큰 길 제8권 하나님의 주권과 인생 제29권 베드로전후서 강해 제9권 롯기서 강해 제30권 택함받은 백성의 축복 제10권 새천년에 할 일 제31권 우리 가운데 계신 하나님 제11권 후회함이 없는 삶 제32권 간추린 신학 제12권 구원 얻는 자의 할 일 제33권 장차 올 영구한 도성 제13권 일어나 빛을 발하라 제34권 위대한 사랑 제14권 감추인 보화와 진주 제35권 데살로니가전후서 강해 제15권 하늘의 시민권 제36권 큰 산이 평지가 되라 제16권 진정한 평화 제37권 경건한 신앙생활 제17권 하나님의 약속 제38권 옛적 선한 길로 행하라 제18권 십자가의 도 제39권 그리스도의 승리 제19권 새벽을 깨우라 제40권 갑절의 영광 제20권 인간의 복된 사명 제41권 세미한 소리를 들으라 제21권 인생의 바른 길 제42권 그리스도인의 영원한 행방

제 1권부터 제 42권까지의 방대한 설교를 색인으로 정리하여 찾아보기 쉽게 하였습니다. 즉,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1,000여 편의 설교에 대한 INDEX를 소책자로 출판하였기에 함께 보내드립니다.

성경 강해 설교집을 보내드립니다.

“신년주일 설교”

이용규 목사 성경강해 설교집 제 19권에서 발췌

본문(Scripture) 고린도후서(2Corinthians) 5:14-19

제목(Topic) 새로운 피조물 (New Creation)

[새로운 피조물의 생활] [The life of the new creation]

- (1) 주의 사랑에 강권을 받음 14, 15 (You were compelled by the love of the Lord) (주의 사랑에 강권 받는 법) (The method of being compelled by the love of the Lord) (A)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음 갈(Gal) 2:20 (You do not live for yourself) (B) 다시 사신 주를 위하여 살 고전(1Co) 10:31 (You live for the risen Lord) (2) 아무도 육체로 알지 않음 16, 17 (You regard no one from the worldly point of view) (아무도 육체로 알지 않는 법) (The method of regarding no one from the worldly point of view) (A) 그리스도를 새로 알게 됨 마(Mt) 16:16 (You know Christ in a renewed fashion) (B) 모든 사람을 새로 알게 됨 시(Ps) 16:3 (You know all people in a renewed fashion) (3) 화목케 하는 직책을 행함 18, 19 (You practice the ministry of reconciliation) (화목의 직책을 행하는 법) (The method of practicing the ministry of reconciliation) (A) 하나님과 화목을 하게 함 욥(Job) 22:21,22 (You are reconciled to God) (B) 사람들과 화목을 하게 함 히(Heb) 12:14 (You are reconciled to men)

설교본문: 고린도후서 5:14-19

- 14)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15)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 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16)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17) 그러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18)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19)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설교집 책을 받아보기 원하는 개인, 교회, 학교, 도서관 등 미국과 한국의 어느 곳에든지 무료로 우송해 드리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LA 동부장로교회 [담임목사: 김정오] 4270 W. 6th St. Los Angeles, CA 90020

설교집신청 담당: 유영아 전도사 (213)505-7831 신청 이메일 427030@gmail.com